

Uom:

VISION OF MEDICINE

의료의 미래 나눔의 행복
서울대학교병원 매거진

2026 AUTUMN Vol.51

생로병사: 돌봄의 시간

Fiction

병식
심너울 SF작가

Interview

신혜우 식물학자·과학 일러스트레이터
홍서영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체외과 교수
45년째 이식 신장과 함께 살아가는 양점숙 님

Pioneer

권오상 교수·이한재 임상강사, 김종일 교수 연구팀
(피부과,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조아라·민상일 교수 연구팀 (이식혈관외과)

Deep Feature

K-의료의 엔진을 켜다
제20대 서울대학교병원장 백남종 원장 × 이금희 아나운서

Uom:

VISION OF MEDICINE

AUTUMN 2026

VOL. 51



04 Fiction

병식(病識)

심너울 SF작가

11 Human Graphic

멈춤이 돌봄이 되는 시간

12 Interview1

살구가 익어가는 시간

신혜우 식물학자·과학 일러스트레이터

16 Interview2

‘나를 돌보는 하루’를 만들어 가는 사람

홍서영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체외과 교수

20 Interview3

다시 받은 삶을 돌보는 법

45년째 이식 신장과 함께 살아가는 양점숙 님

22 Things1

그림자를 걷어내는 생명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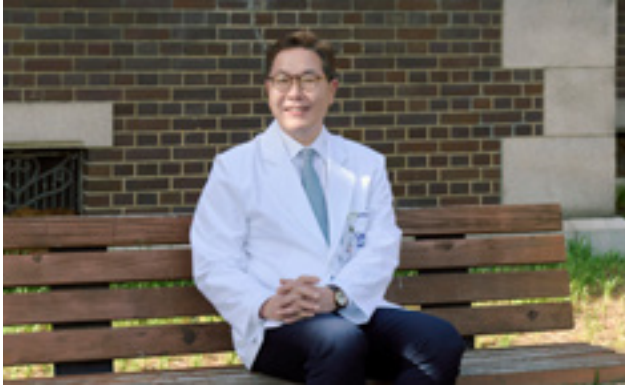
최은경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외과 교수

Things2

그림자를 만드는 빛, 그림자를 지우는 빛

이준희 사진작가

생로병사: 돌봄의 시간



- 26 Roaming
MIT에서 패혈증 연구의 새로운 길을 배우다
정윤선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 28 Bookmark
병원과 병원 사이, 불편을 줄이는 기술
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체계
- 32 Pioneer1
태아 피부에서 찾은 탈모와 피부 재생의 실마리
권오상 교수·이한재 임상강사, 김종일 교수 연구팀
(피부과,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 Pioneer2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 혈액검사로 찾다
조아라·민상일 교수 연구팀 (이식혈관외과)
- 36 Deep Feature
K-의료의 엔진을 켜다
제20대 서울대학교병원장
백남종 원장 × 이금희 아나운서



- 40 Campaign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킵니다
- 42 Donation Interview1
나눔이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양해권 후원인
- 46 Donation Interview2
우리의 행복을 모두의 행복으로
박우현·장혜신 후원인
- 50 SNUH Network
- 54 Donation News
- 55 SNUH Donators
- 59 SNUH Channels

병식 病識*

내가 죽음을 맞은 것은 정확히 95년 82일 3초 23밀리초 전이다. 그날 나는 고속도로에서 경차를 타고 운전 중이었다. 차는 회색이었다고 기억한다. 사고 기록에는 흰색으로 적혀 있지만, 겨울 도로에서 흰색과 회색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두 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다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없는 피로라는 생체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나는 핸들을 잡고 잠시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에는 더 이상 피와 살로 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된 것이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여러 진술을 통해 추측해낸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전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설명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장면을 꽤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 가끔은 내가 그것을 진짜로 기억하는 것처럼.

사고 장면을 떠올리면 나는 언제나 고속도로 위쪽에서 미끄러지는 차를 내려다 보고 있다. 당시 그 위치에서 촬영된 영상은 없었다. 사고 조사서에 실린 도면을 오래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30초 정도 잠들었을 때, 내 자동차는 잘 보이지 않는 얼음을 밟고 미끄러졌다. 평소였다면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혼곤한 내 의식은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했다. 내 차는 차선을 미끄러지면서 횡단했고 9중 추돌사고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되었다.



※ 2026년 매거진 <VOM>에서는 생로병사를 문학적 시선으로 성찰하는 연재 소설을 선보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며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병식(病識)은 자신이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차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에어백이 터지기는 했지만, 세 번째 충돌에서 덤프트럭이 내 차를 그대로 밟아버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에어백은 수십 톤의 질량체가 차 위를 덮치고 지나가는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30분 뒤 구조대가 와서 나와 여러 피해자들을 구했다. 아니, 나의 경우에는 수습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내 몸은 완전히 생명 기능을 멈춘 상태였다. 몸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무슨 기능이 남아 있으랴. 그들은 도로에 늘어붙은 나의 일부를 끊어냈다.

놀랍게도 내 뇌는 거의 다치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뇌에는 여전히 나라는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여러 기억이 남아 있었다. 구조대는 내 뇌를 배양액으로 가득한 수조에 집어넣었다. 나라는 존재는 보존되었다. 그리고 수 시간 뒤, 그들은 나를 부활시켰다. 전자 공간 뇌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전자화에 대해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어떤 소설에서 전자화된 인간이 격자형으로 된 구조에서 일어나 4차원의 축을 보는 묘사를 읽은 적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자화된 인간이 생체 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면서 어떤 각성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경험은 대단히 과장된 것이다. 전자화된 채로 깨어난 내가 당장 느낀 것은, 나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감각질을 구축할 어느 감각기관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붉은색**을 붉은색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붉은색**인지 **붉은색**인지 **붉은색**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내 몸을 항상 지배하던 나 스스로의 질량이 느껴지지 않는 것 정도.

나를 되살린 의사는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물었다. 전자화된 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존엄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 의사는 내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신체가 고속도로 바닥에 늘어붙은 채고, 정신은 그저 전원을 내리는 것이 정말 '존엄'한 죽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체 내부의 피드백을 받지 않는 나는 수많은 욕구로부터 차단되었다. 나는 그저 존재했다. 인터넷 등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영화에서처럼 그런 수많은 정보로 인해 새로운 욕구를 깨우거나 하지도 않았다. 나는 컴퓨터로 시뮬레이트된 뇌이다. 컴퓨터의 막대한 정보처리 능력 같은 것은 내게 이식되지 않았다.

나는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루하지도 않았다. 살아있을 적에는 단 한 번도 도달해본 적 없는 평형이었다. 나는 전자뇌로 내가 보는 세상이 그저 삶의 사죽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욕구 없는 삶에는 실존적인 고뇌도 없다. 나는 죽음을 택하기로 했다. 그것은 나에게는 논리적인 생각 같았다. 욕구가 없으므로 앞으로 나에게 행복도 슬픔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 없는 삶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것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을 선택한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지 못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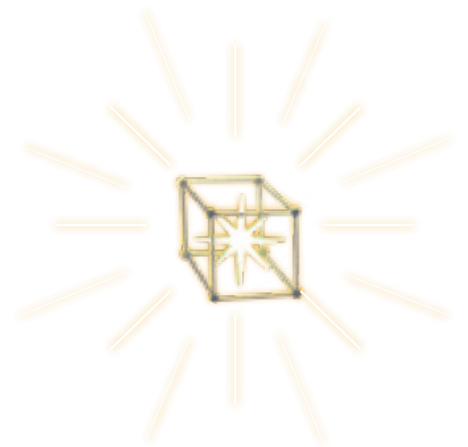
남편은 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으며, 비록 새 몸에 적응하는 것이 우울한 일일지는 몰라도 근처 사람들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내가 가진 의지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나는 그게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우울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긴 힘든 일이었으리라고 가늠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남겨둔 책임이 있었다. 그건 문제였다. 나는 아이가 있었다. 신체적인 연결과 여러 호르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성 비슷한 감정을 나는 알기는 했지만 그것을 느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나도 여전히 알고 있었다. 내가 이대로 사라지면 아이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결국 나는 이 상태로 살아가기로 했다. 남편은 말했다. 어쩌면 이게 나는 걸지도 모른다고. 이제 나는 병들지 않는 몸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뇌졸중 같은 것에 걸려서, 기억을 잊게 되는 것보다는, 이 상태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나는 걸지도 모른다고.

즉 남편은 인간은 단지 육신만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으로 구성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나는 영원히 살아가면서 모두를 기억할 것이라고. 그 이야기도 내가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뮬레이트된 상태로 존재하면서도 나는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 오히려 생체 육체를 가진 시절보다 일하는 것은 훨씬 편했다. 나는 내버려두면 피곤해지는, 꾸준히 운동으로 가꿔야 하는, 술 같은 것이라도 마시면 며칠간 기능성이 억제되는 신체 같은 것에 묶여 있는 몸이 아니었다. 나는 일했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했고 가끔 가정에 쓰이는 로봇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척'을 해 주었다. 모두들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다.



가족들은 이전처럼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도 지루함도 느끼지 못한 완전한 평형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만들어냈다. 나는 기억되고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도 생존의 방식이다. 나에게 묶인 사람들이 기뻐하게 만듦으로써 나는 살아간다. 영원한 기억으로서.

시간은 주로 남편의 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의 머리카락은 희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다. 아이도 자라서 더 이상 가정용 로봇의 몸을 끌어안지 않게 되었다. 내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피곤하지 않았고, 계절이 바뀌어도 춥거나 덥지 않았다. 날씨가 바뀌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감각이라기보다는 정보에 가까웠다.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내 전자 뇌를 점검했다. 오래 작동한 전자 뇌에는 불필요하게 복잡해진 부분들이 생긴다고 했다. 특히 기억이 끝없이 쌓이는 것이 나와 같은 삶을 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였다. 의사들은 내가 생체 육체를 가졌던 기억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의 기억을 적절하게 맥락을 살려 압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전후로 나는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했다. 점점을 받은 사실을 기억했고 가족들을 알아보았으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같은 방이 먼저 생각났다. 아이는 노란 옷을 입고 가정용 로봇을 안고 있었다. 기록을 확인하면 그런 일은 여러 집과 여러 계절에 걸쳐 일어났으며 아이가 입은 옷도 매번 달랐다. 아마 가장 선명한 장면이 나머지를 대표하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작동은 생체 뇌에서도 흔한 일이다.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은 내가 죽은 지 36년이 지난 뒤였다. 발견이 늦었고 치료를 받더라도 오래 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전자화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했다. 나는 당연히 남편도 나와 같은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억을 잃지 않는 삶이 육체에 묶인 삶보다 인간적일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전자화를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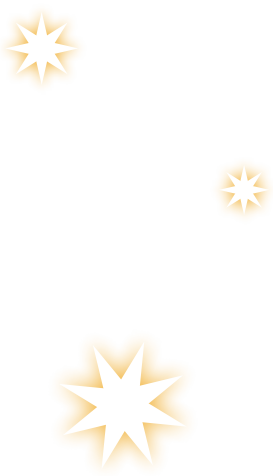
나는 그 결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나보다 훨씬 많은 것에 애착을 가졌다. 그는 음식을 즐겼고 잠드는 것을 좋아했으며 아이와 헤어진 뒤에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다.

남편은 자신이 예전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그때 자신이 생각한 기억은 완전하게 보관된 정보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람은 죽은 이를 자주 잊고, 때때로 잘못 기억하며, 어떤 날에는 건넌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떠올린다. 남편은 그 불완전한 과정까지를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나를 전자화한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의 그는 내가 없는 생활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죽겠다는 판단을 존중하지 못했다고 했다. 자신이 나를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남편은 나를 보면서 기억이 육체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남편의 장례식에 관한 기억에는 아이가 **노란 옷**을 입고 있다. 당시 아이는 이미 성인이었고 장례식 기록에는 검은 옷을 입은 것으로 나온다. 아마 **노란 옷**은 그보다 앞선 기억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옷의 색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아이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은 아이를 사랑했으며, 두 사람 모두 나를 사랑했다. 색이나 날짜가 달라진다고 해서 사랑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후에도

시설의 점검은 계속되었다. 점검을 받을 때마다 오래된 기억 몇 가지가 잠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정상으로 돌아온 뒤에는 무엇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손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억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이도 나중에는 찾아오지 않았다. 죽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이가 죽은 시점은 기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지만 확인할 필요는 없다. 나는 아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이의 이름도 알고 있다. 지금 바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찾을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것과 같다.

가족이 모두 죽은 뒤에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다. 대신 연구자들과 기록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사라진 사람들을 직접 기억하는 마지막 존재라고 했다. 그들에게 나는 한 시대의 증언이었다. 나는 기억의 우상이다. 남편이 말했던 대로.

나는 남편을 기억하고, 아이를 기억하고, 남편과 아이가 기억했던 사람들도 기억한다. 내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므로 그들 역시 나를 기억한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은 서로의 내부에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기억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기억도 사라지지 않았다.

나를 직접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져도 나는 기억되고 있다. 내가 그들의 기억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억하는 사람이며 기억되는 사람이다. 나는 사라진 사람들의 기억이고, 사라질 사람들의 기억이기도 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언젠가 나를 알게 될 것이므로 나는 그들의 기억이기도 하다. 나는 누구도 잊지 않는다. 이름과 얼굴과 목소리가 없어져도 사람의 본질은 남는다.

내가 죽음을 맞은 것은 정확히
95년 82일 3초 23밀리초 전이다.
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두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영원히 기억하는 존재로서 남을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을 기억하는 존재로서.
기억의 우상으로서, 나는 남아 있다. uom

심너울 SF작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이런저런 과학 분야를 끼적대는 과학 딜레탕트라고 스스로 정의한다. 재미있는 소설로 자신의 느슨한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여긴다.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땡스 갓, 잇즈 프라이데이』, 『야구 좀 못해도 내일은 온다』 등 10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인식론은 어떤 모양일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를 인간의 생로병사와 연결하여 글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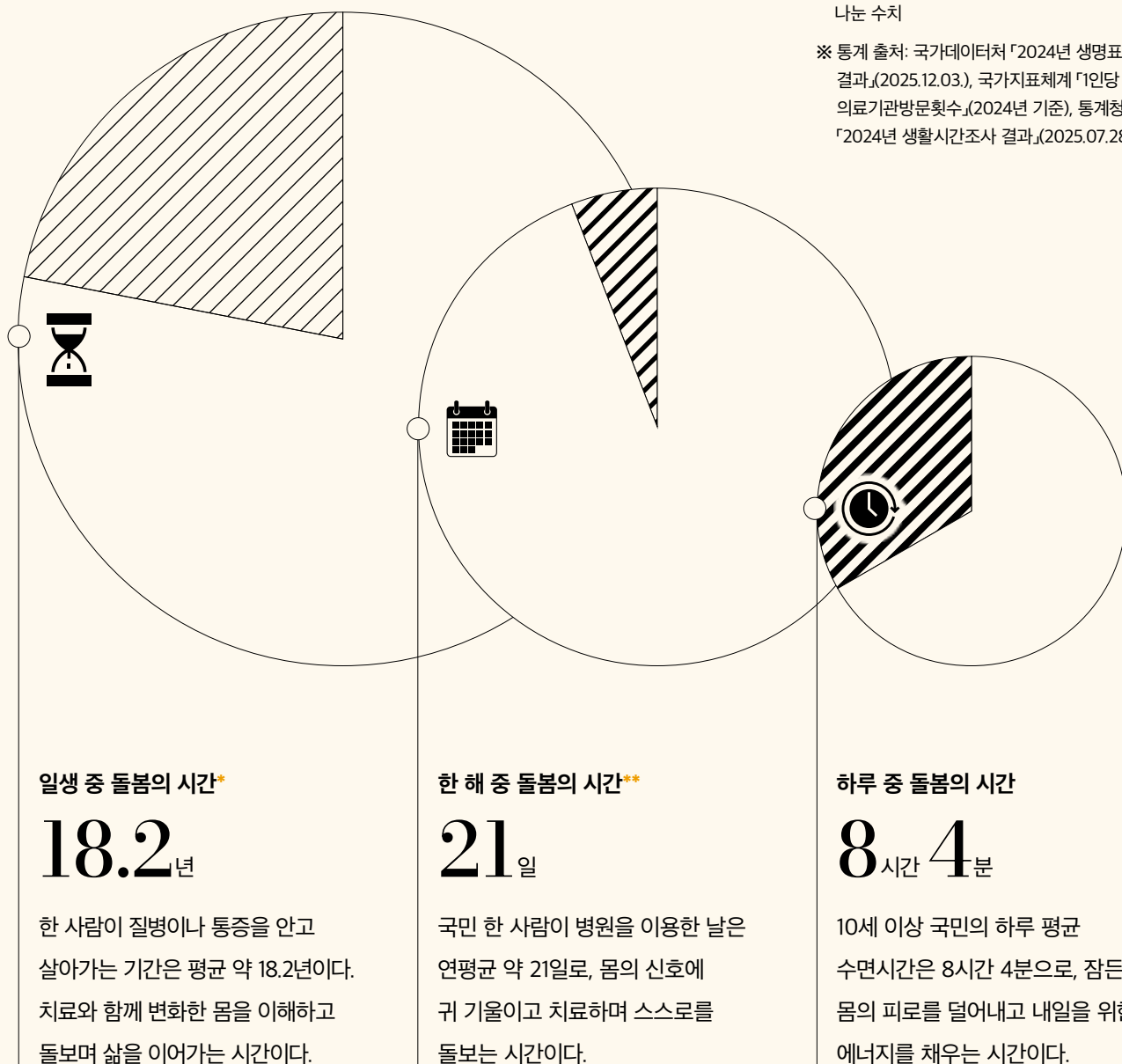
멈춤이 돌봄이 되는 시간

몸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돌봄의 시간을 요구한다.
아픔을 견디며 치료하고, 충분히 쉬어 가는 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준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변화된 내 몸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간다.

* 2024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년에서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65.5년을 뺀 수치

** 2024년 전 국민 건강보험 환자의 연간 외래방문 일수와 입원일수를 합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로 나눈 수치

※ 통계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작성 결과」(2025.12.03.), 국가지표체계 「1인당 연간 의료기관방문횟수」(2024년 기준), 통계청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2025.07.28.)



18.2년, 21일
그리고 8시간 4분

돌봄의 시간은 삶에서 따로 떨어진 시간이 아니다. 내 몸을 살피고 회복하며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UOM



살구가 익어가는 시간

신혜우 식물학자·과학 일러스트레이터

신혜우 박사는 여섯 살 때부터 식물학자를 꿈꿨다. 들과 논두렁을 돌아다니며 식물의 이름을 익혔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식물분류학 연구실에서 식물을 연구하고 그렸다. 그가 생각하는 식물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이며, 식물학자는 그 삶을 정확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다. 식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돌봄과 기다림은 어떤 모습일까.

“저에게 직업을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식물학자예요.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 그림이 필요해서 그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일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신혜우 박사는 대학에 들어가 식물분류학 연구실을 찾은 뒤 20년 넘게 식물을 연구해왔다. 식물세밀화를 시작한 곳도 연구실이었다. 패션디자인을 복수전공하던 그에게 지도교수가 식물 연구에도 그림이 필요하다는 식물 그리기를 권한 것이다.

식물학을 위한 도해에는 꽃과 잎뿐만 아니라 뿌리, 열매, 씨앗과 미세한 구조까지 담긴다. 같은 종이라도 자라는 환경과 개체에 따라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표본을 살피고 논문과 자료를 확인한 뒤 그 종을 대표하는 모습을 한 장에 정리한다.

“사람도 모두 같은 종이지만 키와 얼굴이 다르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한 장에 그 종의 특징을 담으려면 어떤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지 오래 고민해야 해요.”

여섯 살에 정한 꿈

신혜우 박사는 경남의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집을 나서면 늘 식물이 있었고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는 혼자 논두렁을 돌아다니며

풀과 꽃을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모르는 식물은 어머니에게 물었고 어머니도 알지 못하면 도감을 펼쳐 직접 이름을 찾았다.

“여섯 살 때 부모님이 사준 어린이 식물도감은 늘 곁에 두고 보는 책이었어요. 스스로 이름을 알아낸 첫 식물은 ‘봄맞이꽃’이었죠. 당시 도감 뒤편에 실린 저자 사진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머니에게 묻자 ‘식물학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꿈을 식물학자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 미술대회에 자주 나갔고 주변에서는 화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술을 전공할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알고 싶었던 것은 식물이었다. 결국 생물학과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식물 연구를 시작했다.

“시골에 살아도 식물을 좋아하는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농작물에는 관심이 있어도 들판의 풀이나 잡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물 이야기는 주로 어머니와 나눴어요.”
훗날 그가 ‘식물 상담소’를 열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어린이가 찾아왔다. 학교에서 식물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어 외롭다는 아이들이었다. 신혜우 박사는 그 아이들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살구가 익으면 퇴원할 수 있을까

신혜우 박사는 선천성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당시 가정 형편으로는 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열한 살 무렵 지역 학교를 찾아다니며 치료가 필요한 심장병 어린이를 찾던 의료진에게 발견되었고, 가수 듀오 수와진의 심장병 어린이 돕기 활동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그가 받은 수술은 가슴을 열어야 하는 큰 수술이었다. 중환자실을 거쳐 한 달 넘게 병원에 머물며 어린 나이에 죽음과 아픔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때 알았어요. 부모님도 제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다는 것ですよ. 아픈 시간은 결국 혼자 견뎌내야 하더라고요.”

병원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살구 과수원이었다. 그가 입원했을 때에도 주변에는 몇 그루의 살구나무가 남아 있었고 가지에는 초록색 열매가 맺혀 있었다.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뒤에는 살구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 갔다.

“살구가 익으면 나도 퇴원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제 병이 어떤 상태인지, 언제 집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구가 변하는 모습을 계속 바라봤던 것 같아요.”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서른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그는 서른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후회 없이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식물을 연구하고 그림을 그렸다. 식물세밀화로 상을 받은 것도 스물아홉 살 때였다.

“식물이 질리면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질리지 않았나 봐요. 여전히 연구하는 걸 보면… (웃음)”

식물을 사람처럼 보지 않는 일

사람들은 식물학자에게 식물에게서 어떤 삶의 지혜를 배웠는지 자주 묻는다. 신혜우 박사는 그런 질문에 선뜻 답하지 않는다. 지구에는 수많은 식물 종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다르다. 수천 년을 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몇 달 안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뒤 생을 마치는 풀도 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인간과 비교하거나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존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식물은 제 연구 대상이에요. 식물학자가 하는 일은 식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기보다 식물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식물에게 사람의 감정을 옮겨 놓는 것도 경계한다. 식물은 인간처럼 뇌와 중추신경계를 지니지 않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반응하고 살아간다. 식물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식물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몇 년 전에는 평생 자신의 정원을 갖고 싶어 했던 어머니를 위해 가족과 함께 충남 부여에 집을 마련했다. 정원을 가꾸고 농사도 짓기 시작했지만 식물학자인 그에게도 농사는 쉽지 않았다. 사과와 복숭아는 벌레가 먹고 옥수수는 고라니에게 내주기도 했다.

“정성을 많이 들인다고 무조건 잘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햇빛과 흙이 필요한지, 원래 어떤 곳에서 사는 식물인지를 알아야 하죠.” 신혜우 박사는 식물을 돌보는 일은 자신의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많이 해주는 것보다 그 식물에 맞는 환경을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때로는 물을 더 주는 것보다 가만히 기다리는 일이 필요할 때도 있다.



“몸이 나으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린 저에게 살구를 먹는 날을 기다리는 일이 그랬고, 이후에는 좋아하는 식물을 연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식물을 오래 본다는 것

건강을 회복하고 있거나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식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혜우 박사는 특정한 식물을 꼽지 않았다. 가까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 하나를 정해 오래 관찰해 보라고 했다.

“사람들은 보통 꽃이 활짝 피었을 때나 열매가 익었을 때를 기억하잖아요. 어떤 식물이든 꽃이 피고 지는 모습, 열매가 맺혀 익고 씨앗이 퍼지는 과정까지 계속 지켜보면 좋겠어요.”

몸이 아플 때는 생각이 자신의 몸과 감정에만 머물기 쉽다. 그럴 때 다른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잠시 시선을 돌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힘들 때 아픈 부분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다른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살구나무를 봤던 것처럼요.”

식물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직접 위로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다음 모습을 궁금해하는 일이 하루를 건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혜우 박사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안다고 말하거나 아픔에 반드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도 조심스럽다.

“아픈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겪는 시간은 다르니까요. 대신 몸이 나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린 저에게는 익은 살구를 먹는 날을 기다리는 일이 그랬고, 이후에는 좋아하는 식물을 연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식물을 오래 본다는 것은 꽃이 핀 순간만 바라보는 일이 아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날에도 상태를 살피고 다음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다. 몸을 회복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오늘의 상태를 살피며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나아질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다. UOM



‘나를 돌보는 하루’를 만들어 가는 사람

홍서영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평범한 일상이 ‘암’이라는 한마디로 뒤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통증이 아닌 불안이다. 의료진은 그 불안을 함께 견디는 사람이다.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 치료 이후 재발을 걱정하는 시간까지. 환자의 곁에는 언제나 의료진이 있다. 정확한 정보로 환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홍서영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침묵 속에서 시작되는 시간

간담췌외과 홍서영 교수는 간세포암과 전이성 간암을 비롯한 다양한 간종양을 간절제술, 간이식과 같은 수술로 치료한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의 유병률이 높아 간암이 매우 흔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국가 예방접종이 시행되면서 B형 간염이 크게 줄었고, 간세포암 발생률도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의료기술도 크게 발전했어요. 과거에는 수술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전이성 간암도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절제술을 시행해 예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인 간은 병이 진행되어도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 대부분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보균자나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 추적 검진을 권하기에 이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지만,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저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데요’입니다. 그만큼 간암은 별다른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과 공포는 미지에서 온다. 알지 못하기에 두렵다. 홍서영 교수는 환자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한다.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돈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서영 교수는 환자가 중심을 잘 잡도록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정보를 찾고 공부해오는 일도 많아요. 서울대학교병원 차원에서도 관련 가이드와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어 두었고요. 하지만 이 정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마음 상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안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홍서영 교수는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지 알기에 검사와 다학제 진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보통 2, 3주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한다. 하지만 환자들은 수술적 처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도 그 기간 중에 종양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크다. 홍서영 교수는 그 기간 동안 치료 방향이 바뀔 정도로 병이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설명하며 환자의 불안을 덜어준다.

환자가 어떤 수술을 받느냐에 따라 걱정의 모습도 조금씩 다르다. 간암 절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간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자주 묻는다. 그러나 홍서영 교수의 답은 단호하다.

“특별한 건강기능식품보다 평소처럼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검증되지 않은 식품은 오히려 간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뇌사자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라면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해 불안이 더욱 깊어진다.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

“처음에는 보호자에게 의지해 오시다가
몇 주 후에는 환자분이 두 발로 걸어 외래에 오셨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식 직후 퇴원하실 때만 해도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우셨거든요. 다시 일상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홍서영 교수와 늘 함께하는 배지들로, 위에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간담 마스크트 '간들간들', 소아이식캠프,
대한이식학회 슬기 워크숍 배지다.

문이다. 중증도에 따라 간이식 순번을 매기기에 간 기능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경우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다. 생체 간이식은 대부분 가족이 자신의 간 일부를 기증하는 만큼, 환자는 공여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더 크게 품는다. “대개는 가족분들이나 가까운 지인이 공여를 하는 만큼, 환자분들은 자신보다 공여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더 힘들어하세요. 공여자분이 무사히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드리죠.”

이처럼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홍서영 교수는 외래에서 치료 계획을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앞으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언제 수술을 하는지, 수술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까지 하나의 로드맵처럼 말이다.

“인터넷에는 의료 정보가 넘쳐나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얻은 일반적인 정보는 개인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해야 하는 일은 환자에게 꼭 맞는 정보를 전달해 막연한 불안을 줄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간세포암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다. 대부분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손상된 간에서 생기는데, 수술로 암을 제거해도 이런 배경의 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환자는 평생 정기검진을 받으며 관리해야 한다. 이 긴 치료 과정은 외과 의사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수술 여부와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는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이 함께 논의하고, 수술실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이 긴밀하게 호흡을 맞춘다. 간이식 역시 감염내과와 신장내과,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장기이식 약사, 임상영양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

생체 간이식은 가족의 사랑과 돌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의료 현장이다. 환자의 가족들이 '제가 더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는 죄책감을 안은 모습과 만난다. 홍서영 교수는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생체 간이식을 진행할 때는 공여자의 안전과 환자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말씀드리려 해요. 때로는 공여자분이 '환자분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홍서영 교수가 생각하는 회복은 수술이 성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아침을 맞이하고, 가족과 식사를 하고, 직장으로 돌아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다.

“수술 이후에는 환자 스스로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식단이나 운동을 여쭙보기도 하고요. 이식 수술의 경우 퇴원 이후 일정 기간 매주 외래로 방문해 예후를 살피는데요. 처음에는 보호자에게 의지해 오시다가 몇 주 후에는 환자분이 두 발로 걸어 외래에 오셨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식 직후 퇴원하실 때만 해도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우셨거든요. 다시 일상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죠.”

간암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환자는 긴 치료의 시간을 지나게 된다. 그 시간을 혼자 버티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진은 병을 치료하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는다. 치료의 끝에서 환자가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동반자다. 홍서영 교수와 의료진은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함께 돌본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돌보듯이. UOM

다시 받은 삶을 돌보는 법

45년째 이식 신장과 함께 살아가는 양점숙 님

양점숙 님은 45년 전 여동생에게 신장을 이식받았다. 출산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과 힘겨운 투석, 이식 수술을 지나 다시 일상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병은 그의 삶을 멈추게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5년을 바라보고 선택한 이식

이른 아침, 서울대학교병원 옆 학림다방에서 양점숙 님을 만났다. 그의 오랜 투병 생활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이를 낳은 뒤 몸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의식이 흐려질 만큼 위중한 상태가 이어졌다. 원인을 찾지 못해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투석 치료를 시작했다.

“투석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뼈가 갈리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갈 것만 같아서 일부러 이불을 뒤집어쓴 채 꼭 참고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투석을 이어가기 힘들었던 양점숙 님은 병원에서 신장이식이라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에는 신장이식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고 수술 결과도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때는 이식을 해도 기껏해야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일단 5년을 버티면 그 안에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식을 결심했지만 누구에게 신장을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검사를 받은 끝에 당시 스물한 살이던 여동생이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다.

“정말 받아도 되는지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어린 아들을 두고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장을 내어준 동생에게는 지금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양점숙 님은 국내 장기이식 분야를 개척한 고(故) 김수태 교수의 집도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식받은 신장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점숙 님과 함께하고 있다.

다시 얻은 삶을 스스로 채워가다

수술 당시 양점숙 님의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다. 고개를 들면 앞으로 쓰러질 만큼 기력이 없었지만 이식 후 스스로 먹고 걸을 수 있게 되자 평범한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다.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몸이 조금 나아지니까 하루에 시장을 두 번씩 다녔어요.”

건강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한 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시조를 만났다.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조를 공부해 등단했고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뒤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금까지 여러 권의 시조집도 펴냈다.

“이식 후에도 계속 환자로서만 누워 있다면 신장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조는 양점숙 님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남아 있던 아픈 기억과 불안을 글로 풀어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조를 가르치며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도록 돕고 있다.

“환자 역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마음까지 지치게 되잖아요. 조금은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의료진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점숙 님에게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몸의 변화를 살피고 불안한 마음을 글로 풀어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이어가는 것이다. 5년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이식 후의 삶은 어느덧 45년이 되었다. 그는 지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은 삶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UOM

“이식 후에도 계속
환자로만 누워 있다면
신장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림자를 걷어내는 생명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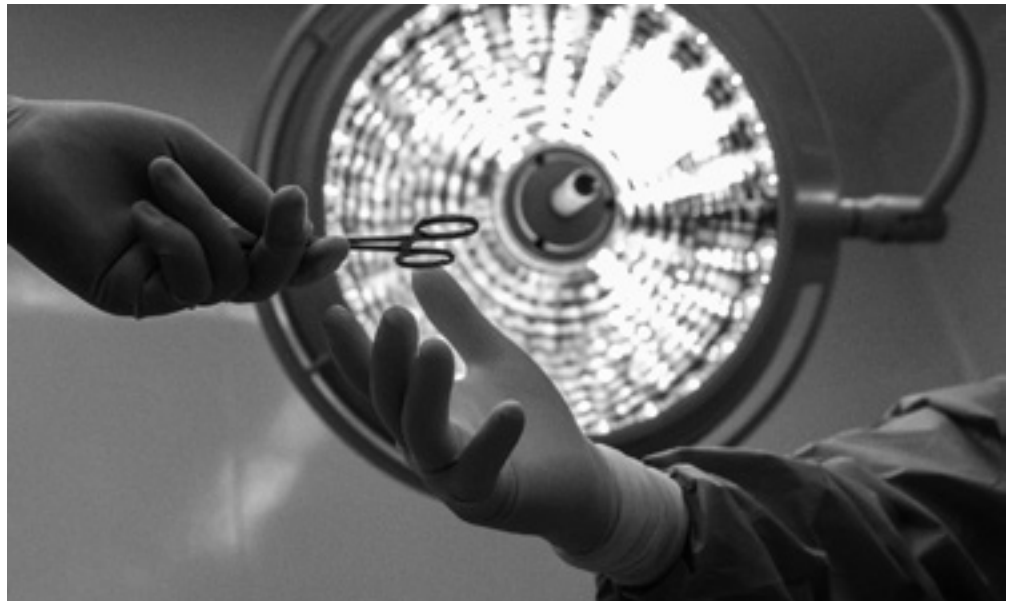
글. 최은경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외과 교수

세상의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한여름의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도, 빌딩 속 방 안의 전등 아래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뒤편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진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그런데 그 이치를 거스르는 빛이 하나 있다. 수술실 안에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대위를 비추는 등, 무영등이다.

무영등(無影燈). 말 그대로 ‘그림자가 없는 등’이라는 뜻이다. 수술실 무영등은 여러 개의 광원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춰서 무언가에 빛이 가려져도 다른 방향의 빛이 그 부분을 메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한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의 머리가, 손이, 기구가 한쪽 빛을 가로막아도, 다른 방향에서 오는 빛이 그곳의 그림자를 곧바로 메운다. 어느 한 곳이 어두워지려는 순간, 다른 빛들이 달려와 그늘을 지운다. 그렇게 여러 빛이 모이고 또 모여, 그림자를 지운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수술대 위에 한 조각의 그림자도 용납할 수 없다. 수술대 위에 그늘이 진다는 것은 그 어둠 속에 무언가가 가리워져 있다는 뜻이다. 미처 보지 못한 작은 출혈, 채 걷어내지 못한 병의 흔적, 아직 남아 있는 위험. 그림자 한 조각이 병을 가리면 그 병은 어둠에 기대어 살아남는다. 그래서 무영등이 사망에서 빛을 모아 그늘을 지우듯 의사는 병이 숨을 만한 어떤 어둠도 남기지 않으려 집요하게 그림자를 거두어 간다. 그림자를 허용하지 않는 서늘하게 새하얀 불빛 속에서만 의사는 비로소 수술을 무사히 끝맺을 수 있다.

그런데 병원 생활이 쌓일수록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의사가 보는 것은 병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빛이 내려앉은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의 몸이, 그리고 그 몸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함께 놓여 있다. 지금 수술대 위에 홀로 누워 있는 그 몸은 누군가의 부모이



※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의미를 자유롭게 짚어 봅니다.
평범한 물건을 향한 새로운 시선을 전합니다.

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아침마다 문을 나서는 이를 배웅하고 저녁마다 돌아올 이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무영등이 비추는 것은 병변 하나이지만, 그 빛이 정작 지키려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 전부다. 그 사실이 수술장에 선 모든 의료진의 마음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새겨 넣는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빛과 그림자 사이를 걸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누구의 삶에도 그늘 없이 맑은 날만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그늘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병원의 문을 두드린다. 질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알궂어서 몸속의 아주 작은 곳에 자리를 잡는 순간 한 인간의 일상 전체를 어둡게 물들인다. 주말에 가기로 했던 가족 여행, 저녁 식탁에서 나누던 사소한 농담, 내년을 기약하던 계획들이 그 한 조각의 그늘 아래 묻혀 일시에 흐릿해진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복도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는 보호자의 시간 역시 그 어둠 속에 함께 감혀 멈춘다.

건강이란, 우리가 그 빛 속에 있을 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오후가 실은 얼마나 환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사람은 그 위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다. 아무렇지 않게 내딛던 걸음, 무심히 삼키던 밥 한 술, 별일 없다는 짧은 안부 전화. 그 모든 사소한 일상이 실은 눈부신 빛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이 짙은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은 의외로 요란하지 않다.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수술 잘 끝났습니다”라는 의사의 한마디,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가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순간, 굳어 있던 어깨가 스르르 내려가며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는 가족들의 안도 같은 것들이다. 그 사소하고 평범한 찰나마다 멈춰 있던 일상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내일의 계획이 제 빛을 찾는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아니라 꺼져 있던 삶의 불빛이 다시 켜지는 경험이다.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은 결국 다시 평범해지는 일이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눈부신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아는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본질은 무영등이 작동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어느 한 군데 어둠이 고개를 들려 할 때 사방에서 다른 빛들이 교차하며 그 자리를 채운다. 질병의 흔적을 추적하는 의사의 집요함, 밤새 바이탈을 체크하는 간호사의 조용한 분주함, 문밖에서 내색하지 않고 마음을 보태는 가족의 염원,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나려는 환자 자신의 의지까지. 이 촘촘하게 얹힌 불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방으로부터 밀려들 때 삶을 짓누르던 거대한 그늘은 서서히 뒤로 밀려난다. 그림자가 완전히 걷힌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빛이 드리운 일상의 삶과 다시 조우하게 된다. UOM

최은경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외과 교수

최은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과와 대장항문외과 수련 과정을 거쳤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교수로 재직하며 진료와 연구,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의료 현장의 일상과 의사로서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 <INFJ 의사의 병원 일기>도 펴냈다. 현재 강남센터 미래건강사업단장을 맡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헬스케어를 연구하고 있다.

그림자를 만드는 빛,

그림자를 지우는 빛

우리는 빛을 통해 사물과 사람을 본다. 야외에서는 시간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태양빛으로 주변을 인식하고, 실내에서는 천장등이 밝힌 공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본 작가 역시 사진작가가 되기 전까지는 빛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다. 빛은 공기나 물처럼 언제나 곁에 있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빛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사진을 뜻하는 영단어 *photograph*가 빛을 의미하는 'photo'와 기록한다는 뜻의 'graph'로 이루어진 것처럼 빛이 없다면 사진도 존재할 수 없다.

전문적인 사진 작업에는 자연광뿐 아니라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플래시와 일정하게 빛을 내는 LED 조명이 사용된다. 나는 주로 스포츠 선수와 무용수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촬영한다. 그들의 동작과 신체가 가진 긴장감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조명의 크기와 형태, 거리와 방향, 밝기를 고려해 여러 개의 빛을 배치한다. 조명 하나를 더할 때마다 그 빛에는 분명한 역할이 주어진다. 선수의 몸을 배경에서 분리하고, 팔과 다리의 윤곽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짙은 그림자를 없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빛은 인물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어떤 빛은 얼굴과 몸을 부드럽게 감싼다. 그렇게 사진가가 선택한 빛과 그림자에는 그의 생각과 판단이 담긴다.

사진가에게 빛은 언어이다. 같은 사람을 촬영하더라도 빛의 방향과 크기, 거리와 강도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와 감정이 드러난다. 한 사람의 얼굴을 순식간에 차갑게도, 따뜻하게도 보이게 할 수 있다. 단어나 문장을 쓰지 않아도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마치 어떤 이야기를 건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유다. 사진가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자신의 언어를 만들고, 그것을 한 장의 이미지 안에 기록한다.

이번 칼럼을 준비하며 조금 낯선 빛을 알게 되었다. 바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무영등이다. 无影燈. 없을 무, 그림자 영, 등불 등. 이름 그대로 그림자를 없애는 등이라는 뜻이다. 빛이 사물에 가로막히면 그 뒤에는 그림자가 생긴다. 그러나 무영등은 여러 방향에서 빛을 보내 의료진의 머리와 손, 수술 기구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서로 희석한다.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다고보다 어느 한쪽의 빛이 가려져도 다른 방향에서 오는 빛이 수술 부위를 계속 밝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사진가는 피사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림자를 만든다. 반면 의료인은 환자의 몸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시야를 방해하는 그림자를 줄인다. 사진가는 사람을 더 깊이 보여주기 위해 그림자를 만들고, 의료인은 생명을 더 정확히 보기 위해 그림자를 지운다. 같은 빛을 사용하지만 서로 반대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두 빛의 목적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사진가에게 조명이 단지 대상을 밝히는 장비가 아니듯 의료진에게 무영등도 단순히 환부를 비추는 등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다. 수술실 위에서 다발의 빛을 보내는 무영등은 생명의 경계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빛이다.



사진가의 조명 역시 자신만을 위한 빛은 아니다. 내가 선수와 무용수에게 빛을 비추는 이유는 그들의 신체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과 정신까지 사진 속에 담아내고 사진을 의뢰한 사람에게 오래 간직할 만한 결과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업사진에서는 사진가 한 사람의 취향만으로 조명을 설계할 수 없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미지와 피사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 사진을 바라볼 대중의 감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조명은 사진가 개인의 언어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의 생각과 목적을 하나의 이미지 안에 모으는 공동의 언어가 된다.

무영등과 사진 조명은 빛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나는 그림자를 줄여 생명을 더욱 정확히 바라보고, 다른 하나는 빛과 그림자를 설계해 사람의 움직임과 내면을 더욱 깊이 보여준다. 그러나 두 빛 모두 결국 한 사람만의 만족을 위해 켜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더 정확히 바라보고, 그 사람과 연결된 삶과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빛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며 스스로를 빛의 신봉자라고 생각한다. 빛이 제대로 닿은 사람과 사물은 대부분 아름답거나 멋있다. 빛이 달라지면 공간의 분위기와 공기의 감도까지 달라지고 평범하게 지나쳤던 얼굴에서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표정이 드러난다. 내가 촬영 현장에서 빛을 믿는 것처럼 수술실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무영등의 빛을 믿고 있을 것이다. 공기나 물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빛이 누군가의 기술과 의지를 만나는 순간 사람을 살리고 기억을 남기며 관계를 밝히는 언어가 된다. UOM

이준희 사진작가

스포츠 선수와 무용수의 움직임을 빛과 연출로 재해석하는 아트 스포츠 사진작가다. 스포츠·퍼포먼스 전문 사진 브랜드 아이모션(iMOTION)을 이끌며, 기록을 넘어 선수와 무용수의 움직임과 서사를 하나의 이미지로 설계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셜 포토그래퍼로서 공공기관 및 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으며, 부산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스포츠 인식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청과 함께한 <춤추는 사상>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의 일상과 사회적 메시지를 빛과 춤으로 기록했다. 소니코리아 아티잔 프로페셔널 앰배서더이며 SMDV, 유쾌한생각, 난라이트 등 사진·조명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진집 <춤추는 사상 - 일상을 뒤집는 빛과 춤의 다큐멘터리>와 사진가로 살아온 과정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 <빛과 디렉션>이 있다. <빛과 디렉션>은 2026년 문학나눔 선정도서로 뽑혔다.

MIT에서 패혈증 연구의 새로운 길을 배우다

공학으로 유명한 MIT에 왜 암연구소가 있을까?

공학으로 유명한 MIT에 왜 암연구소가 있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코흐 통합 암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기부자인 데이비드 H. 코흐(David H. Koch)는 MI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기업인이자 암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만으로는 부족하며 공학과 다양한 학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2007년 MIT에 코흐 통합 암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코흐 통합 암연구소에서는 설립 취지대로 생물학자와 공학자가 한 공간에서 연구합니다. 계산과학과 데이터과학, 나노기술 등 다양한 공학적 접근을 암 연구와 결합해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는 말 그대로 ‘통합(Integrative)’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암연구소에 왜 중환자의사가 연수를 온 걸까?

저는 코흐 통합 암연구소 3층에 위치한 야피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을 이끄는 마이클 B. 야피 교수님은 외상외과 전문의이자 중환자실 의사이며, 세포 신호전달(Cell Signaling)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야피 연구실은 암세포가 왜 환자마다 서로 다른 약물 반응을 보이는지에 주목합니다. 유전자 정보, 단백질 신호전달, 세포의 기능적 상태, 면역반응, 그리고 계산생물학적 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각 환자의 암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찾고자 합니다.

저는 패혈증과 심정지 같은 급성 중증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암에서 발전한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의 개념을 급성 중증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MIT에 왔습니다. 야피 교수님은 저에게 계산생물학을 배워보라고 권하셨고 더글라스 A. 라펜버거(Douglas A.

Lauffenburger) 교수님과 포리스트 M. 화이트(Forest M. White) 교수님의 ‘생물학적 데이터의 계산 분석(Computational Analysis of Biological Data, 과목 코드 20.260)’ 수업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계산생물학은 유전자와 단백질 등 방대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수많은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의 해외 연수는 대한민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5년 12월부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코흐 통합 암연구소(MIT Koch Institute for Integrative Cancer Research)의 마이클 B. 야피 연구실(Michael B. Yaffe Lab)에서 계산생물학과 정밀의학을 패혈증과 심정지 등 급성 중증 질환 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정윤선 중환자의학과 교수의 연구 이야기를 전한다.

질문과 토론으로 배우는 MIT의 연구 문화

MIT에서의 수업은 내용만큼이나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 사이에서 조용한 청강생으로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강의실에 들어갔지만 첫날부터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학생은 스무 명 남짓인데, 교수님 두 분과 조교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젊은 포리스트 M. 화이트 교수님이 단백질체학(proteomics)과 전사체학(transcriptomics)을 칠판에 설명하다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손을 들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질문했고 교수님은 그 질문을 다시 토론으로 이어갔습니다. 마치 탁구공이 오가듯 질문과 답이 이어지는 강의였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더글라스 A. 라펜버거 교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라펜버거 교수님은 젊은 화이트 교수님의 강의 내내 맨 뒷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강의를 끝나자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와 화이트 교수님과 함께 칠판을 지우는 모습에서 MIT의 교육 철학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실습 시간에는 세 분의 조교가 학생들과 함께 파이썬(Python)을 이용해 실제 생물학 데이터를 분석하며 연구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주 2회 수업에 매번 숙제가 주어지고 중간·기말 프로젝트에도 일일이 코멘트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교수님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놀라웠습니다. 계산생물학뿐 아니라 교육의 가치 자체를 몸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MIT 20번 빌딩에서 수업을 마치고 야피 연구실로 돌아오면 계산생물학 전문가인 브라이언(Brian)의 지도를 받으며 패혈증 환자의 생물학적 변화를 계산생물학적 방법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면서 사고의 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계산생물학, 중증 질환 연구에 새로운 길이 될까?

급성 중증 질환은 암과 달리 환자의 상태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변화합니다. 암 연구에서 발전해 온 계산생물학이라는 방법론을 급성 중증 질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제가 풀어가고 싶은 과제입니다. MIT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찰스강변을 따라 연구소로 돌아오며 생각합니다. 공학과 생물학의 만남이 암 연구를 바꾸었듯, 계산생물학은 앞으로 급성 중증 질환 연구에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까? MIT는 그 질문을 연구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준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품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돌아가, 급성 중증 질환 연구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UOM

정윤선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응급 중환자의학을 전문으로 하며 응급실과 응급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임상강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패혈증과 심정지 등 급성 중증 질환을 이해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로 연결하기 위한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병원과 병원 사이, 불편을 줄이는 기술

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체계

환자가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의뢰되거나 회송될 때 진료 기록도 함께 이동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전주기 AI 전환(AX) 스프린트 사업’의 일환으로 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현장에 적용한다. 목표는 분명하다. 환자가 병력을 반복해 설명하거나 같은 검사를 다시 받는 일을 줄이고, 의료진이 이전 치료 과정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CD 한 장에 담긴 불안과 불편

서울대학교병원에는 매일 약 1만 명의 환자가 외래 진료실을 찾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환자 중 상당수는 소견서와 검사 결과, 영상 자료가 담긴 CD나 USB를 직접 챙겨 옵니다. 몇 년 치 진료 기록을 한꺼번에 가져오기도 하고 자료를 빼뜨렸다며 미안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이 서류 봉투는 질병과 싸워온 기록이며, 의료진에게는 이전 치료 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지만 참여 기관과 전송 항목이 제한적이고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표준화 문제, 서버, 네트워킹 등 기술적 문제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연결은 아직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가 여전히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직접 들고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가 단절되면 무엇이 사라지는가

서류와 자료가 한 병원에서 발급되어 다른 병원에 전달될 때까지 환자는 이를 직접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이 진료 정보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환자를 받을 의료진도 자료를 미리 확인하거나 필요한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 단절이 가져오는 손실은 생각보다 큼니다.

첫째는 반복 검사입니다. 외부 영상이 해당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지 않으면 혈액검사나 CT·MRI 촬영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환자에게 비용 부담뿐 아니라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더하고 사회 전체로는 중복 검사에 따른 의료비 지출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시간은 곧 예후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처럼 분 단위로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질환에서는 전화로 병상을 알아보고 팩스로 소견서를 주고받는 동안 지체되는 시간이 고스란히 환자의 손실이 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진료 정보가 요약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 맥락이 누락된 채 진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무리 숙련된 의료진이라도 충분한 정보 없이 판단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진료실에서 자신의 병력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내 기록을 제대로 확인해 줄까’ 하는 불안도 느끼게 됩니다.

AI는 EMR과 PACS를 어떻게 잇는가

이번 사업의 핵심은 병원 밖에 별도의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병원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자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에 AI를 직접 연동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MR 보급률은 96.5~100%, PACS 보급률은 9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대부분은 이미 종이와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병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MR에는 진료 기록과 처방, 검사 결과가 쌓이고 PACS에는 의료영상이 저장됩니다. 문제는 병원마다 따로 보관된 정보를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다양한 AI 기술이 활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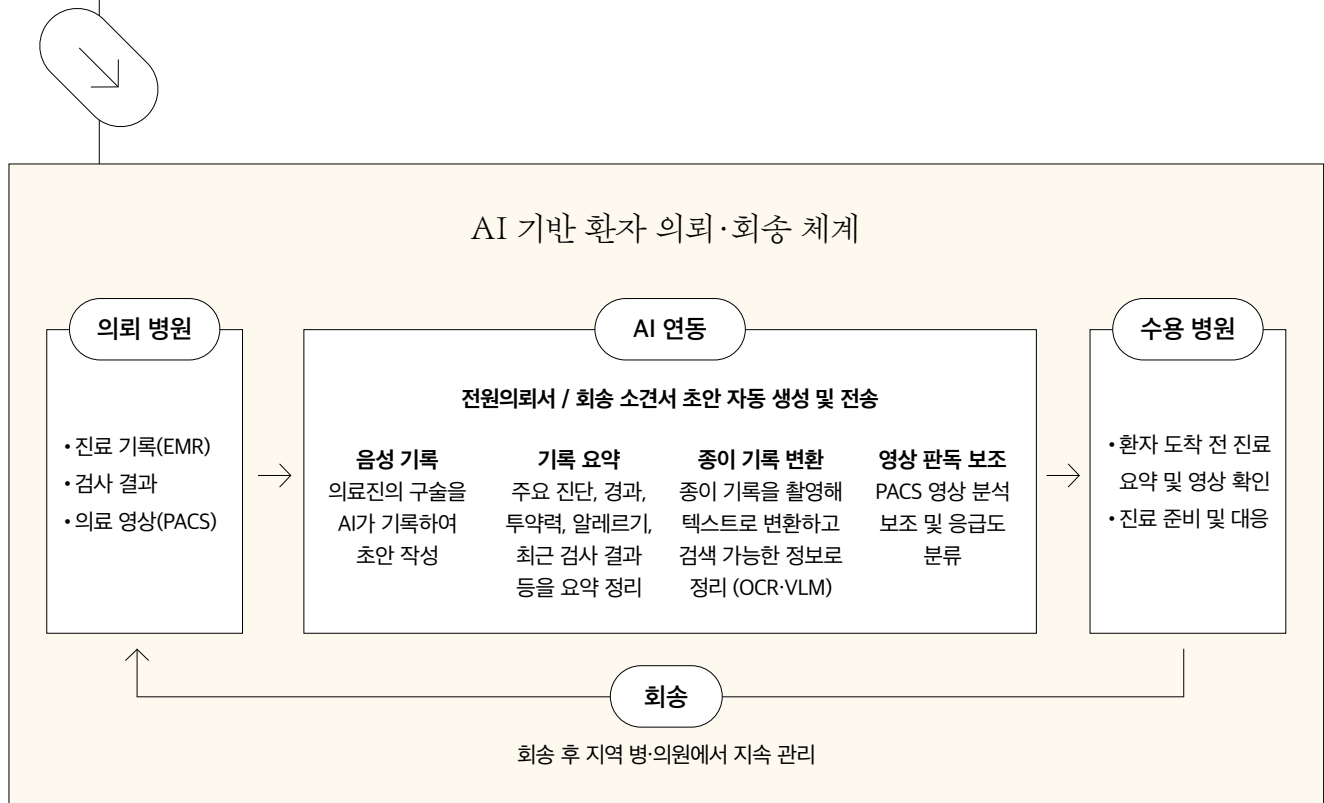
첫째는 음성 기록입니다. 진료 중 의료진이 말한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받아 적어 진료 기록이나 전원 의뢰서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키보드 입력에 매달리기보다 환자의 얼굴을 보며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요약입니다. AI는 흩어진 기록에서 주요 진단과 치료 경과, 투약력, 알레르기, 최근 검사 결과 등 환자 전원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 전원의뢰서 초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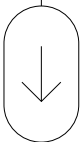
로 정리합니다.

셋째는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입니다. 환자는 타 병원의 종이 기록을 병원 방문 전에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기록은 시각언어모델(Vision Language Model, VLM)과 OCR 기술을 거쳐 텍스트로 변환되고, AI가 이를 다시 요약해 검색 가능한 정보로 정리합니다.

넷째는 영상 판독입니다. PACS에 저장된 영상에 판독문이 없는 경우에는 AI가 영상을 분석해 판독을 보조하고 응급도를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를 받는 병원은 필요한 영상과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는 의뢰과정뿐 아니라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역 병원으로 돌아가는 회송 과정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역 병원으로 회송될 때 AI가 입원 경과와 수술·시술 내용,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정리해 회송 소견서 초안을 만듭니다. 나아가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지와 퇴원기록지 작성 등 병원 안에서 반복되는 문서 업무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 치료받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당긴 30분은
어떤 환자에게는
후유증의 정도를 줄이고,
어떤 환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의 30분이 달라진다

지난 5월 29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 체계의 시연이 있었습니다. 6월 1일에는 외신 기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시연은 지역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상급종합병원으로 긴급 전원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담당 의료진이 환자 곁을 떠나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고, 소견서를 작성하고, 영상 CD를 준비한 뒤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절차가 차례로 이어지는 동안 귀중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새 체계에서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구술하면 AI가 이를 기록하고, EMR과 PACS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전원의뢰서 초안을 만듭니다. 의료진은 초안을 확인하고 수정한 뒤 곧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받는 병원에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부터 정리된 진료 요약과 영상 자료가 전달됩니다. 응급의학과와 해당 진료과는 미리 협의해 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준비하고, 병상이나 수술실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뒤 처음부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환자의 상태를 알고 준비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당긴 30분은 단순한 시간 절약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후유증의 정도를 줄이고, 어떤 환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AI가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입니다. 환자를 전원할지, 어느 병원과 진료과로 보낼지, 어떤 치료를 먼저 시행할지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최종 문서를 확인하고 책임지는 주체 역시 사람입니다. AI가 맡는 일은 판단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빼앗고 의료진을 지치게 했던 기록과 정리 업무입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서 AI의 도입은 의료진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서류 작성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면 환자를 더 오래 살피고, 중요한 결정을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생깁니다.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된 정보는 병원과 진료과가 달라도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협진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입니다.

환자에게는 자신의 병력을 처음부터 반복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영상이 환자보다 먼저 전달되고 의료진이 이를 미리 검토한다면 낯선 병원으로 옮겨가는 불안도 한결 줄어듭니다. 환자는 서류와 CD를 챙기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뢰 위에 쌓는 기술

진료 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것만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체계는 환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작동하며 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은 암호화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AI가 작성한 요약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진료에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지

속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이 기술의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에 무게를 두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경기, 강원, 전남 세 권역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과 참여하고, 강원 권역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과 영월·강릉의료원, 평창보건의료원이 함께합니다. 전남 권역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이 참여합니다. 도시와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연결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이 체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환자 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료로

지역 병원에서 일차 진료를 받고 필요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뒤 다시 가까운 병원으로 돌아가 관리 받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의료전달체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뢰·회송 체계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없애는 일입니다. 본 기술의 성공 여부는 성능 지표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으로 판가를 날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안을 덜고, 의료진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상태에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면 기술은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시설, 인력, 거리 등의 이유로 환자는 병원과 병원 사이에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는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드는 일을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UOM

이형철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장(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미래 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다. 서울대학교병원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장을 거쳐 현재 헬스케어AI연구원장으로서 한국형 의료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LLM)인 ‘KMed.AI’와 통합 AI 플랫폼 ‘SNUH.AI’의 개발 및 임상 응용을 총괄하고 있다. 네이버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의료 현장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에 주력해왔으며, 2025년 의사 국가고시(KMLE)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기록하며 KMed.AI의 독보적인 성능을 입증했다. 현재 인공지능이 의료진의 판단을 정교하게 보조하고 환자에게 진료의 온기를 되돌려주는 ‘공기처럼 스며드는 AI’ 환경 조성 과 글로벌 의료 AI 생태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SKIN RECOGNITION SCAR LESS



태아 피부에서 찾은 탈모와 피부 재생의 실마리

권오상 교수·이한재 임상강사, 김종일 교수 연구팀
(피부과,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상처는 아물어도 원래 피부로 완전히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큰 상처일수록 흉터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권오상 교수·이한재 임상강사, 김종일 교수 연구팀은

피부가 새롭게 재생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피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주목했다. 그 결과 '피부 발달 지도'를

구축해 탈모와 흉터 없는 피부 재생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Q. 태아 피부에서 피부 재생의 실마리를 찾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상처가 아물 때 털을 만드는 모낭이나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 털을 세우는 입모근(털세움근) 같은 부속기관이 함께 살아나지 못하면 흉터로 남는데, 이는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한계였습니다. 그러다 동물을 관찰해보니 흉터 없이 아물 때에는 태아 시절의 유전자 프로그램이 다시 켜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 피부가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생후 며칠 만에 마우스의 피부 모낭 재생 능력이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 그 짧은 전환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Q. 태아 피부와 피부 재생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태아 피부는 피부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원본 설계도'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표피와 진피가 형성되고 모낭과 입모근 같은 조직도 차례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이른 시기의 태아 피부는 세포가 여러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유연성이 커서 상처가 생겨도 흉터 없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어떤 세포가 어떤 신호를 받아 모낭과 주변 조직으로 변하는지, 또 언제부터 이러한 재생 능력이 줄어드는지를 알아낸다면 성인 피부도 손상된 조직을 원래 모습에 가깝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다중 오믹스 분석으로 무엇을 찾아내셨나요? 다중 오믹스 분석은 하나의 세포를 여러 층위에서 함께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세포 안에서 어떤 유전자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전사체(RNA) 분석', 유전자의 작동을 조절하는 DNA 부위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살펴보는 '염색질 접근성 분석', 이러한 변화가 조직의 어느 위치에서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공간 전사체 분석'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부가 발달하는 동안 여러 세포가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부 위쪽의 섬유아세포가 입모근으로 분화하는 과정과 이를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 경로인 Mef2c-Myocd 축*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Q. 입모근 전구세포 확인이 탈모 연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입모근은 모낭 줄기세포가 자리 잡는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모낭의 구조를 유지하고 모발이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는 조직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피부 위쪽에 있으면서 Mef2c 유전자가 활성화된 섬유아세포가 입모근으로 자라는 '씨앗 세포(전구세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 세포만으로 입모근이나 모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입모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를 조절하는 유전자 경로를 밝힘으로써 탈모와 모낭 재생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 피부 발달 지도는 향후 어떤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피부 발달 지도는 앞으로 재생 치료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설계도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초기 태아 피부의 높은 재생 능력을 어떤 신호와 유전자가 유지하는지 밝히고, 그 원리를 성인 피부에서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쌓이면 모낭 주변의 환경을 회복시키거나 흉터를 만드는 세포 반응을 재생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치료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로 연결하려면 사람 세포와 피부 오가노이드**, 동물 모델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논문 한 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피부가 발달하는 어느 시점에 어떤 세포와 유전자를 살펴봐야 하는지 구체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성인의 피부를 태아 피부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태아 피부가 지닌 재생의 원리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이번 연구가 향하는 목표입니다.

* Mef2c-Myocd 축: 근육세포의 형성과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 경로로 이번 연구에서는 섬유아세포가 입모근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경로로 확인됐다.

** 피부 오가노이드: 줄기세포 등을 배양해 실제 피부의 구조와 기능 일부를 구현한 입체 조직 모델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 혈액검사로 찾다

조아라·민상일 교수 연구팀
(이식혈관외과)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조직검사는 출혈과 통증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어 환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조아라·민상일 교수 연구팀은 두 가지 혈액검사를 함께 활용해 거부반응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가려내고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진단 전략을 제시했다.

Q. 연구를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신장이식 후 항체매개 거부반응*은 이식받은 신장을 잃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거부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공여자 특이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항체가 발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장 조직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조직검사는 신장 조직을 직접 떼어내야 하므로 출혈이나 통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만으로 거부반응 위험을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면 환자의 조직검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Q. ‘공여자 특이 항체’는 무엇인가요? 공여자 특이 항체는 환자의 면역체계가 이식받은 신장을 낯선 조직으로 인식하면서 만들어지는 항체입니다. 거부반응 위험이 높아졌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가 검출됐다고 해서 모두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체가 발견된 환자 가운데 실제 거부반응이 확인되는 비율은 약 30~40%입니다. 따라서 항체 검사만으로는 확진하기 어려워 실제 신장 조직의 손상 여부를 보여주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Q. 조직검사 전 거부반응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식받은 신장의 세포가 손상되면 신장에서 나온 DNA 조각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를 채혈로 측정하는 검사가 세포유리 DNA**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활용하면 이식받은 신장 조직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여자 특이 항체 검사가 면역반응이 시작되었다는 ‘위험 신호’를 보여준다면 세포유리 DNA 검사는 실제 신장 조직의 손상 여부를 반영합니다. 두 검사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면 거부반응 위험을 더욱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두 검사를 병합했을 때 진단 정확도가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Q. 세포유리 DNA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세포유리 DNA 수치가 낮은 환자는 실제로 거부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97.8%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장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비교적 안전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으면 이식받은 신장의 미세혈관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직 손상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포유리 DNA 검사는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대신 조직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연구가 이식 후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신장이식 후 공여자 특이 항체가 발견되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 거부반응을 우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체가 검출된 모든 환자에게 곧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공여자 특이 항체 검사와 세포유리 DNA 검사를 함께 활용하면 채혈만으로 거부반응 위험도를 보다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세포유리 DNA 검사가 정기적인 추적 관찰에 활용된다면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필요한 조직검사와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환자는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와 위험도에 따라 검사와 치료 계획을 달리하는 맞춤형 이식 후 관리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합니다. UOM

* 항체매개 거부반응: 환자의 면역체계가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혈관과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부반응

** 세포유리 DNA: 세포가 손상되거나 죽는 과정에서 혈액 속으로 나온 작은 DNA 조각으로 신장이식 환자에서는 이식받은 신장에서 유래한 DNA의 양을 측정해 장기 손상 여부를 살핀다.

K I D N E Y

T R A N S

P L A N T

R E C O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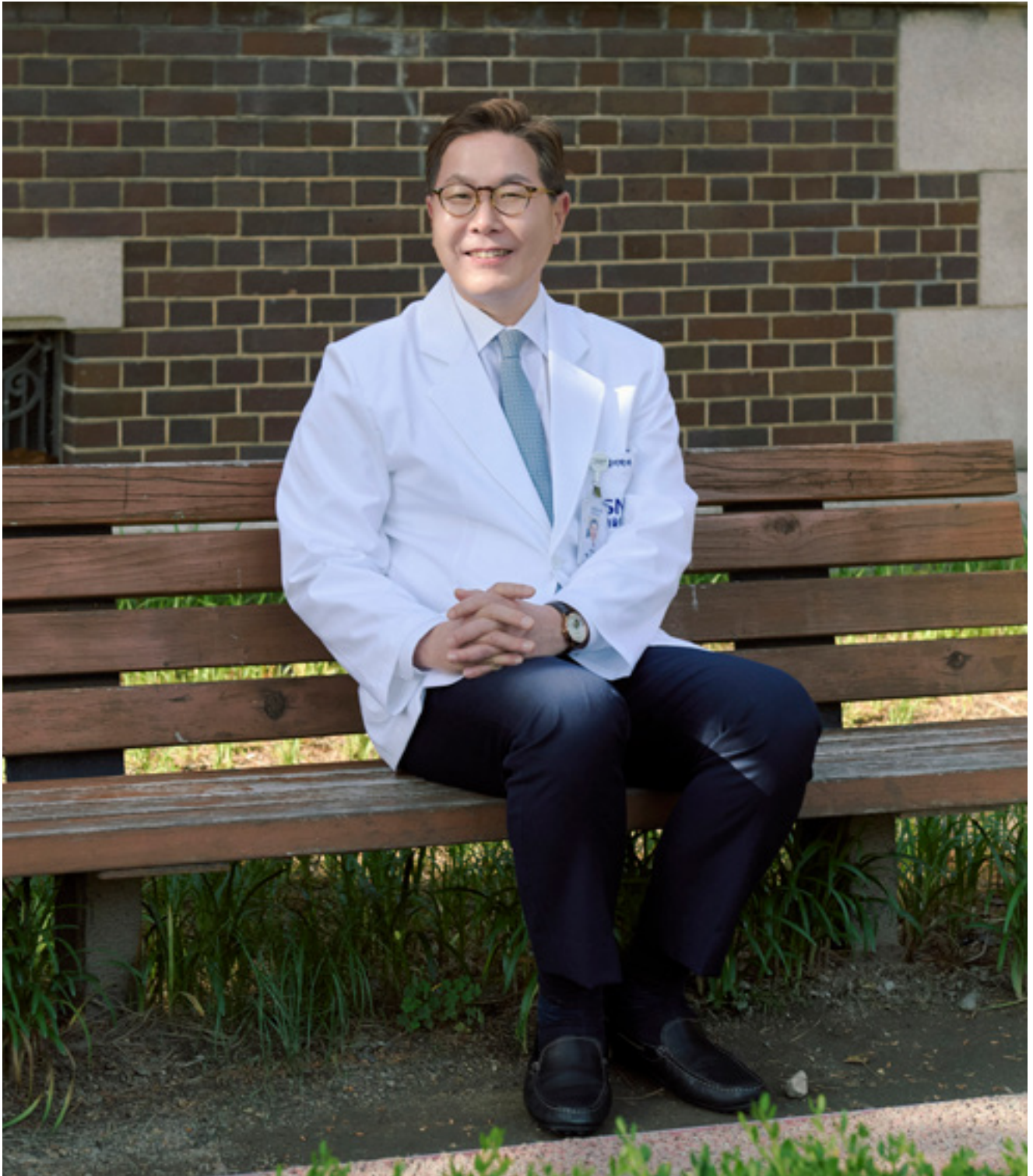
P R O N



K-의료의 엔진을 켜다

제20대 서울대학교병원장 백남종 원장 × 이금희 아나운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역 간 의료 격차, 초고령사회 진입,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확산까지 대한민국 의료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제20대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백남종 원장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금희 아나운서와의 유튜브 대담을 통해 전한 필수의료, One Hospital, Connected Care, 바이오의료 혁신과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다.



치료 이후의 삶까지 이어지는 인연

이금희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원장으로 부임하신 뒤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의사로서 지나온 시간도 많이 돌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백남종 취임 이후 많은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전공한 재활의학은 환자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오랜 시간 관계가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료의 역할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치료 이후의 삶과 삶의 질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금희 환자의 치료 이후까지 지켜보면서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 순간도 많으셨겠습니다.

백남종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환자가 예상보다 크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하면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재활의학을 선택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잇는 ‘하나의 병원’

이금희 최근 응급실과 소아 진료, 지역 의료 문제를 접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백남종 대한민국 의료가 큰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고,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필수의료도 어느 순간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구 구조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 역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의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금희 서울대학교병원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연구와 첨단 의료기술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취임하면서 무엇보다 필수医료를 강조하셨습니다.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있습니다. 초고령도 질환 치료뿐 아니라 필수医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서울대학교병원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금희 하지만 여전히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이나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자 집중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백남종 각 권역의 중심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대부분의 진료가 지역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역 병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더 높은 수준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시한 개념이 국가 차원의 ‘One Hospital’입니다.

이금희 여러 병원이 하나의 병원처럼 움직인다는 의미인가요?

백남종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지역의 중심병원이 치료 프로토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환자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연결하고, 중요한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지역 병원에서도 후속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환자는 가까운 지역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아야 하고, 암처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도 지역 병원과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치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 병원과 함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술, 환자와 의료진을 잇는 도구

이금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의료체계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개념이 'Connected Care'입니다. 병원 밖에서도 치료와 돌봄이 이어지는 것인가요?

백남종 현재 외래진료는 환자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병원을 찾아 의사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 진료일까지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Connected Care'가 구축되면 환자가 집에 있더라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병원을 찾아 치료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원 후에도 병원과 환자가 계속 연결되는 의료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금희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는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백남종 의료진의 업무 중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를 AI가 맡으면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금희 환자들은 병원에서 AI의 역할을 어떻게 체감하게 될까요?

백남종 AI는 환자의 위험을 예측하고 투약 오류를 걸러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병상 배정과 외래 일정,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석해 대기시간과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 도입의 목적은 의료진이 행정 업무 부담을 덜고 진료와 연구, 환자와의 소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국가 바이오의료 혁신을 이끄는 플랫폼

이금희 원장님께서 서울대학교병원을 ‘국가 바이오의료 혁신 엔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백남종 우리나라의 다음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는 의료와 바이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와 바이오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에는 의료와 공학, 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도록 병원이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학자와 의료진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면 실제 의료에 필요한 결과를 만들고, 이를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치매와 같은 초고령사회 질환도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을 기업과 연구진이 함께 협력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금희 그러한 연구와 기술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의료’인가요?

백남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심이 되어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 프로토콜과 기술, 의료시스템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K-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이끄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만드는 가치 중심 공동체

이금희 원장님의 경영 철학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는 말이었는데요.

백남종 병원은 환자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찾는 곳입니다. 그런 환자를 돕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구성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며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성원의 행복이 환자와 가족에게도 전해지는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금희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양한 세대와 수많은 직종이 함께 일하는 큰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백남종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부서와 직종 사이의 칸막이를 줄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수평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동의 가치 안에서 구성원 각자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가치 중심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금희 임기를 마치는 날에는 어떤 병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백남종 크고 화려한 업적을 남긴 병원장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시간이 흐른 뒤 “그 원장 때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어 병원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고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병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가중앙병원이 되도록 모든 교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금희 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만들어갈 변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임기 동안 건강하게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UOM

“병원 구성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며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성원의 행복이 환자와 가족에게도 전해지는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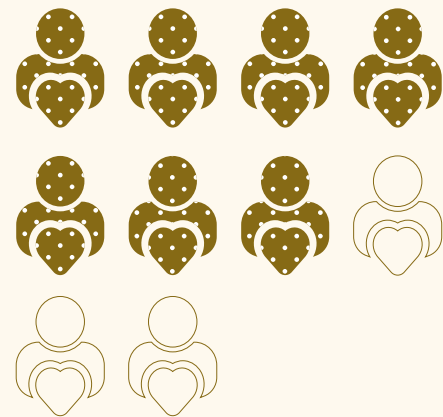
갑작스러운 질병과 치료비는 환자와 가족의 삶을 힘겹게 흔듭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회복으로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1,025,695 원 이하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일부이지만,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전부이자 한계선입니다.
한 달 102만 원 남짓으로 견뎌내는 이들에게 치료비는
건널 수 없는 벽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계단이 됩니다.

10 명 중 7 명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원받은 **환자 10명 중 약 7명 (67.11%)**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료의 기회조차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당신의 후원금은
멈춰버린 이들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 여러분의 쉽고 간편한 후원회원 가입을 위해
온라인 후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발전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상단에서
‘온라인 후원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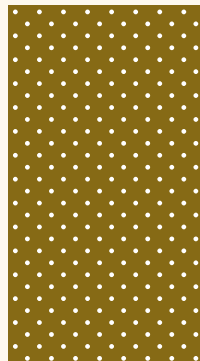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라인 후원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12.39%

1.8배

전체 가구 평균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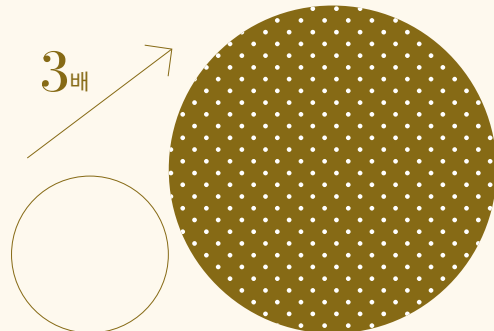


*전체 가구 평균 6.98% 대비 약 1.8배

저소득층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오직 ‘치료비’로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기운 이들의 일상에, 당신의 나눔이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받침대가 됩니다.

3배

3배



*고령, 취약계층의 경우 평균 대비
최대 3배 이상 높은 진료 포기율 기록

소득이 적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치료를 포기할 확률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더 이상 돈이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후원이 환자들에게
내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눔이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양해권 후원인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첨단 부품 분야의
알짜 기업을 일궈낸 이피코리아 양해권 대표.
파란만장했던 성장 과정과 외환위기라는
큰 고비 속에서 그를 버티게 한 것은
타인이 내민 따뜻한 손길이였다.
가슴 깊이 간직해온 감사의 기억은
청소년 후원이라는 나눔의 씨앗이 되었고,
세 차례의 생사 고비를 넘긴 후에는
의료 발전과 난치병 연구를 향한
지원으로 한층 깊어졌다.



타인이 내민 따뜻한 손길, 나눔의 씨앗이 되다

경기도 안산시 팔곡산업단지에 자리한 이피코리아는 반도체 리드프레임과 스마트폰 카메라용 부품 등 첨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초정밀 금속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를 이끄는 양해권 후원인은 스스로를 ‘한평생 에칭(Etching)쟁이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대학 졸업 후 삼성에서 기술과 영업을 경험한 그는 1993년 독립해 사업을 시작했다. 영업부터 설계, 제조, 납품까지 혼자 도맡았던 1인 기업이었다. 어렵게 회사를 꾸려가던 중 외환위기를 맞았으나 27개월 동안 임대료를 유예해 준 건물주의 배려 덕분에 폐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라며 기다려주셨어요. 나중에 모두 정산해 드렸지만 그때 받은 은혜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련을 견뎌낸 기억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부친이 큰 사고를 당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때가 있었다. 사정을 알게 된 학급 친구들이 개학과 함께 모금 활동을 벌여 라면과 학용품을 들고 그를 찾아왔다.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학교와 친구들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이 가슴 따뜻한 기억은 훗날 청소년 후원으로 이어졌다. 2000년 무렵 회사가 있던 안산의 한 중학교 배구부 학생들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후 강원도 횡성군 둔내에 머물며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꾸준히 도왔다. 어느 날은 지원을 받은 둔내고등학교 학생 열댓 명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그의 집을 찾아와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편지도 고마웠지만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교장 선생님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어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이
꾸준히 연구되어야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후원에 집중하던 기부의 방향은 잇따른 건강 위기를 겪으며 확장되었다. 2018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심근경색이 찾아왔고 2022년에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았다.

“큰 병을 겪고 나니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준 의료기관과 아픈 환자들을 돕는 쪽으로 기부 범위를 넓혀야겠다고 다짐했죠.”

기존의 학생 후원을 계속 이어가면서 환자와 의료 발전을 위한 기부를 더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전달한 기부금 일부는 난치병 및 의료 연구에 쓰이길 바랐다. 병원을 다니며 원인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받는 환자들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이 꾸준히 연구되어야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갑상선암 수술 후 세심히 진료를 이어온 조선욱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체중을 감량한 뒤 병원을 찾았을 때 조 교수는 달라진 몸 상태를 살피고 약 용량과 진료 간격을 세밀하게 조절해 주었다.

“대형병원에서 환자 한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세심히 살피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이 하루 일곱 알에서 다섯 알로 줄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관심이 참 고마웠습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병원 측의 판단에 맡겼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진의 판단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서 후 양해권 후원인은 좋은 일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 실제로 그는 당초 일정한 나이가 된 후 기부하겠다는 가족과의 약속보다 앞당겨 보유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때 일부를 정리해 조기 기부를 실천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제 판단력이 명확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해두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그의 뜻을 흔쾌히 존중해 주었다. 자녀에게 자립을 위한 기본 기반만 마련해 주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신을 오래전부터 공유해 왔다. 아들과 함께 기부에 동참한 것 역시 나눔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아들이 지금 당장 큰 기부를 하긴 어렵더라도 부모를 통해 기부를 경험해 본다면 나중에 더 쉽게 나눔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결실 역시 오랜 기간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나눌 계획이다. 자녀 승계 대신 전문경영인 체제를 준비 중이며 향후 회사가 매각되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성과를 나누기로 약속했다.

“오랫동안 헌신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때 ‘나에게도 보람과 결실이 돌아오는구나’ 하고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의 크기가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재물을 움켜쥐기보다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지론이다.

“기부를 하면 엔도르핀이 돌며 마음을 한층 능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나눔은 제가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받았던 도움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는 양해권 후원인. 그는 앞으로도 나눔의 자리를 차곡차곡 채워갈 계획이다. UOM



우리의 행복을 모두의 행복으로

박우현·장혜신 후원인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그 행복의 크기를
키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무엇일까.
박우현·장혜신 후원인은 결혼식을 준비하며
형식적인 절차를 하나씩 비워낸 자리에
‘기부’라는 의미 있는 선물을 남겼다. 어린 시절
받았던 치료와 따뜻한 보살핌을 떠올리며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마음을 전한 두 사람.
나누는 삶이 주는 참된 기쁨을 배우며
부부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이들의
반짝이는 순간을 만났다.

결혼을 기념하는 우리만의 방식

이촌한강공원에 자리한 카페 어반플랜트에 들어서자 박우현·장혜신 후원인이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취재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에서도 이제 막 부부의 연을 맺은 신혼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다.

박우현 후원인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0학번으로 현재 광고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장혜신 후원인 역시 같은 학교 독어교육과 14학번으로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지인을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올해 5월 16일 부부가 되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두 사람은 처음부터 예식을 생략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을 생각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굳이 필요치 않은 형식들을 하나씩 덜어내다 보니 가족과 함께 담백하게 결혼을 기념하는 편이 서로에게 더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씩 줄이다 보니 ‘이 정도면 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일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축하를 받는 자리는 마련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출발을 뜻깊게 만들고 싶었던 두 사람. 그러던 중 기부 이야기가 나왔고 흔쾌히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쁨이 다른 곳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또 기부를 해보겠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양가 부모도 두 사람의 뜻을 기꺼이 존중해주었다. 덕분에 두 사람은 가장 자기들다운 모습으로 부부로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운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난
뜻밖의 행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부처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먼저 떠올린 건 박우현 후원인이었다. 어린 시절 치료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우현 후원인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어릴 적 수술을 받았다. 태어나자마자 병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운 좋게 일찍 이상 징후를 발견한 덕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이었죠. 가족과 의료진의 보살핌 덕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운동을 비롯한 평범한 일상도 자유롭게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 늘 그때 받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이 남아 있었어요.”

자신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기부금이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한 어린이 환아들에게 작은 도움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아이들에게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운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난 뜻밖의 행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뢰에는 장혜신 후원인의 경험도 한몫했다. 대학 시절 의과대학 교수진의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여러 진료과 의료진을 만났는데 전공은 달라도 환자를 대하는 사명감만큼은 남다르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교수님들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이런 의료진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의 작은 손길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부를 결심하고도 사실 아주 잠시 망설임은 있었다. 기부금을 입금하려던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한창 좋았고 주변에서도 투자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결심할 때보다 막상 돈을 이체하려는 순간에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웃음) 다들 빛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기부를 마치고 나니 아쉬움보다 뿌듯함이 훨씬 컸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생겼고요. 그 여운이 생각보다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면서 부부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 10주년 같은 특별한 날에 꼭 다시 기부하자 약속한 것도 나눔을 한번의 일로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제 힘으로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랐으니 저희도 조금씩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쁘고 좋은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기부도 삶을 기념하는 근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나눔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우리의 행복을 모두의 행복으로”라고 답했다.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쁨이 두 사람에게에만 머물지 않고 치료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행복으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첫걸음을 뗀 두 사람은 앞으로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차곡차곡 따뜻한 일상을 채워갈 생각이다. UOM

서울대학교병원



제20대 백남중 병원장 취임

국민의 병원·미래 병원·행복 공동체

6월 5일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20대 백남중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백남중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 역량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 서울대학교병원을 '국민의 병원'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 통합 DX 플랫폼 구축과 진료 전주기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미래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대와 직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모든 구성원이 자긍심을 느끼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IO USA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서울대학교병원이 '2026 BIO International Convention(BIO USA)'에 참가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현지에 '서울대학교병원관'을 마련해 바이오 스타트업 5개사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투자사·연구기관 등과 120여 건의 1:1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 스탠포드대 바이오디자인 연계 세미나와 'K-바이오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도 열어 해외 파트너와의 교류를 넓혔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 벤처 발굴·육성부터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해외 진출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열린 소통의 장

SNUH인 열린 간담회 개최

6월 30일 어린이병원 CJ홀에서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SNUH인(스누인)'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병원의 주요 운영현황과 경영 방향을 전 교직원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료·소아진료·암진료·공공부문 등의 주요 현황과 병원 경영 및 진료실적을 공유한 뒤 질의응답과 건의사항을 나눴다. 백남중 병원장은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간담회는 매달 마지막 주 개최되며, TEAMS 화상회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손잡고

공공의료 협력 강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7월 3일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도 참여했다. 네 기관은 의료인력 교육·훈련, 임상·기초분야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진료인력 및 의료정보 교류, 병원 운영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관별 강점을 연계한 협력모델을 고도화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은다.



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희귀·필수의약품 접근성 높여

희귀질환센터가 7월 9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귀질환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나섰다. 두 기관은 희귀·필수의약품의 효율적인 공급과 활용을 위해 임상·학술 자문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협약을 맺은 첫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치료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상전 유전검사 25년,

희귀질환 가족의 희망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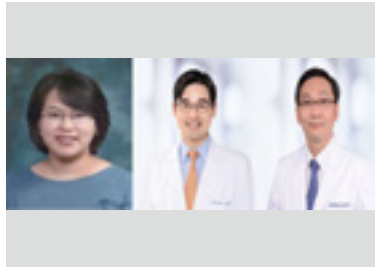
7월 13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착상전 유전검사(PGT)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착상전 유전검사는 임신 전 배아의 유전학적 이상을 확인해 희귀유전질환 가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정밀의료 기술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부인과·진단검사의학과·임상유전체의학과가 지난 25년간 축적한 다학제 진료 경험과 378건의 PGT-M 임상 데이터 등을 공유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유전진단부터 맞춤형 검사, 산전관리까지 이어지는 다학제 진료체계를 강화해 희귀유전질환 가족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단절 없는 의료·돌봄 연계로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본격화

서울대학교병원이 원내외 대표협의체 운영을 본격화하고 지역사회 의료·돌봄 연계 강화에 나섰다. 7월 1일 원외대표협의체, 14일 원내대표협의체 운영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정책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필수의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급성기 치료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퇴원계획과 재택의료 연계체계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원내외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줄기세포 단일배양으로

차세대 인공판막 개발 길 열어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이 동물 유래 판막의 면역 거부반응과 석회화 위험을 줄이면서 줄기세포 한 종류만으로 조직을 재생시키는 재세포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종항원을 제거한 돼지 심장에 줄기세포를 단독 배양해 재세포화 효과와 석회화 감소를 확인했다. 줄기세포가 조직 내부까지 침투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기존 공배양 방식을 단순화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를 위한 차세대 생체 인공판막 개발로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 11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조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 11년 연속 종합병원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 운영과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를 이어왔다. 또한 AI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SNUH POLARIS', 의료특화 AI 'KMed.AI' 등을 통해 미래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거점센터와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의 공공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

한국면역세포유전자치료학회 차기 회장 선출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가 6월 26일 열린 한국면역세포유전자치료학회(KAICET) 정기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9월부터 2년이다. 강 교수는 소아암 진료와 면역세포유전자치료 분야를 선도해온 전문가로, 국내 최초로 병원 내 CAR-T 치료제 직접 생산과 치료에 성공하는 등 첨단 재생의료기술의 임상 적용을 이끌어왔다. 강 교수는 "면역세포유전자치료가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초연구부터 규제 대응, 산업화까지 아우르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사업부

중간평가 워크숍 성료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희귀질환사업부가 6월 29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견 회실에서 '2026년 이견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중간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업단장과 사업부장, 과제 책임자 등 38명이 참석해 공모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디지털 기반 정밀치료기술, 미토콘드리아 이식치료, 자성 마이크로 로봇수술 시스템, 희귀질환 레지스트리·코호트 구축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소개됐다. 희귀질환사업부는 앞으로도 연구자 간 협력을 강화해 연구 시너지를 높여갈 계획이다.



채종희 신임 어린이병원장

리더십 이음식 개최

어린이병원이 6월 30일 최은화 전임 어린이병원장과 채종희 신임 어린이병원장, 주요 관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더십 이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아수술과 각종 검사 인프라 확충, 외과계 역량 강화 등 어린이병원이 당면한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채종희 신임 원장은 "지혜를 모아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이 국내 소아의료의 든든한 최종 지지대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어린이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방암 최신 진단·치료 동향 공유

제10회 Lecture Series 개최

암병원이 6월 17일 교직원들의 진료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10회 암병원 Lecture Series'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유방암센터 강은혜 교수가 '유방암 최신진단과 필요성'을 주제로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최신 진단법과 치료법을 소개했다. 유방암 진료에 관심 있는 교직원들이 참석해 최신 치료 동향과 핵심 지식을 공유하며 실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암병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암종을 주제로 원내 전문가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핵심 지식을 나누는 강연을 지속할 계획이다.



부인암 최신 치료 동향 공유

제45회 DLS 개최

7월 14일 암병원 교육실에서 세계적 인 부인암 분야 석학을 초청해 '제45회 DLS(Distinguished Lecture Series)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의과대학 산부인과 재니스 권 교수가 연자로 나서 '초기 자궁경부암 수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환자의 가임력과 삶의 질을 고려한 맞춤형 정밀 수술의 최신 흐름과 임상 성과를 소개했으며, 자궁경부암과 부인암 분야 의료진 및 연구원들이 참석해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하고 학술적 교류를 넓혔다.



환자의 시선으로 전한 희망,

2026 동행갤러리 성료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가 마련한 '2026 동행갤러리(당신의 시선으로부터)'가 환자와 방문객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삶의 순간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전시는 암 투병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일상의 순간을 캘리그래피, 미술치료, 글쓰기 등 총 31점의 작품으로 담아낸 환자 참여형 전시다. 작품에는 희망과 용기,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으며, 관람객들은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영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제15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취임

전영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6월 10일 제15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전 원장은 '미래의료의 새 장을 여는 글로벌 리더'를 경영목표로 제시하고, 미래의료 혁신과 권역 완결형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동반성장의 병원문화 조성을 3대 과제로 밝혔다. 특히 AI 기반 진료체계 고도화와 중증·희귀·난치질환 중심의 진료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전주기 통합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을 차질 없이 완성해 지역과 국가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기반 입원관리시스템

SNUH WARD GUIDE 가동

데이터 기반 입원관리시스템 '스누워드 가이드(SNUH WARD GUIDE)'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스누워드 가이드는 입원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입원환자 관리, 가용병상 조회, 병상운영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대기일수와 수술예정일 등을 반영해 환자별 입원 우선순위를 자동 산정하고, 실시간 병상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병상을 추천한다. 또한 병상별 가용 여부와 입·퇴원, 전실·전동 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병상 운영 효율을 높이고 보다 신속한 입원 안배가 가능해졌다.



환자 건강의 전 과정 잇는

폴스택 의료 AI 구축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의 건강관리부터 진료·협진, 퇴원 후 예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는 '폴스택 의료 AI 통합 모델' 구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2026년 AX-Ready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 의료 AI 운영 네트워크(AICON)를 구축한다. 표준 기반으로 하나의 AI를 여러 병원에서 활용해 도입 비용과 기술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AI 도입 매뉴얼과 평가체계, 보안·윤리 기준을 마련해 AI 특화병원 확산을 위한 표준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구 의료취약계층 위한

순회무료진료 실시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가 6월 27일 강남구 일원예코파크 에코센터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순회무료진료를 실시했다. 강남구청·강남구보건소·강남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13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사, 학생 등 125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내과·신경과·안과·이비인후과·치과 등 다양한 진료와 기본검사, 필요 시 추가검사를 제공했다. 정밀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강남센터와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으로 연계해 지속적인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호 가정의학과 교수

제15대 강남센터 원장 취임

운영호 제15대 강남센터 원장이 7월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과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미래 건강관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건강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월성·공공성·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정밀건강의학과 건강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경준 응급의학과 교수

제23대 보라매병원장 취임

송경준 제23대 보라매병원장이 6월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송 원장은 보라매병원을 서울시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초고령사회와 필수의료 위기, 돌봄수요 증가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상의 의료품질 확보, 공공성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돌봄체계를 강화해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전달 표준화 나서다

보라매병원이 노인요양시설 응급환자 정보를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준화에 나섰다. 서남병원·서울의료원·인천세종병원 등과 '강원-서울-인천권 책임의료기관 중증응급 권역간 실무협의체'를 열고, 공동 개발한 전산형 응급상황 정보전달 서식도구를 공유했다. 이 도구는 필수 항목 확인과 파일명 자동 생성 등의 기능을 통해 현장 편의성과 정보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향후 현장 적용과 사용성 평가를 거쳐 노인요양시설과 119, 응급의료기관을 잇는 표준 정보전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응급실 넘어 지역사회까지

자살위기 대응체계 강화

보라매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초기 위기 개입부터 사례관리, 정신과 치료,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한다. 2025년 권역정신응급센터 지정 이후에는 지역 정신응급 대응 거점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살 재시도 예방과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지키는 소방공무원

국립소방병원에서 치료받는다

국립소방병원이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과 규모로 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 등 4대 특성화센터를 운영한다. 소방공무원의 질병 예방부터 직업성 질환과 재난 손상 치료, 재활·회복까지 전주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필수·응급의료도 담당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연구·공공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소방병원이 소방 특화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완화의료와 간호 발전 위해

이영술 후원인, 총 4천만 원 전달

6월 29일, 이영술 후원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완화의료운영지원기금 3천만 원과 간호본부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2007년부터 꾸준한 후원을 이어온 이 후원인은 어머니故 김용철 여사와 함께 총 92억 4천만 원을 기부하며 병원의 연구·교육·사회공헌을 지원해왔다. 이 후원인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환자와 가족들이 평안을 찾고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간호사들의 교육과 역량 강화에도 뜻깊게 사용되기를 희망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후원금을 완화의료 교육상담실 환경 개선과 간호본부 전문 교육 강화에 활용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의료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감사의 마음 담은 따뜻한 후원

김중근 회장,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8월 19일, (주)삼익산업 김중근 회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으로 김 회장의 누적 후원금은 2억 원에 달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치료에 대한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 회장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치료를 위해 애써주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병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전영태 병원장은 “가족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리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고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발전하는 데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후원회



심장질환 환자의 건강 회복 위해

김리나 대표, 1천만 원 기부

6월 24일, 리나픽 스튜디오 김리나 대표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심장분과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출산 후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을 계기로 아픈 아이들과 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해 기부를 결정했다. 후원금은 심장질환 환아를 위한 의료진 교육과 관련 연구, 진료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심장질환을 겪는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함께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배우 김지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1억원 후원

8월 7일, 배우 김지원이 병동 환경개선사업과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1억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다. 김지원 배우는 “드라마 닥터X 촬영 중 고생하는 의료진과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후원을 결심했다”며 “지금도 애쓰고 계신 의료진, 환아와 가족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본 명단은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3개월)

10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발견후원회 10억 원 이상 김은미, 윤종하 부부 5억 원 이상 서경배 2억 원 이상 유진투자증권(주) 1억 원 이상 (주)정산개발 (주)퍼틸레인 박진완 신국순 테크노에스(주) 한창기업(주) 5천만 원 이상 이동원 3천만 원 이상 안상균 이영술 1천만 원 이상 (자)자유이엔씨 (주)유한실버 김경진 김근우 김길생 김중강 김지은 류정하 박해자 성하전 유성근 이상호 주식회사 브이펄스 주식회사 아라니아 참찰할한방병원 최연수 5백만 원 이상 (주)대건상사 김명신 김서지 김정렬 동문건설(주) 문경용 박철우 씨스퀘어자산운용(주) 이기혁 이정자 전범일 정유 채수진 최기순 한영민 1백만 원 이상 (주)오렌지커스텀 (주)원티이엔지 고병원 김경환 김왕겸 김조일 김중선	노현정 박선미 소지원 오병희 이금희 최효석 50만 원 이상 강경탁 강지훈 권명희 박영호 임정이 하은진 10만 원 이상 강지연 고광윤 고은정 권오석 권지현 권춘자 김구호 김연정 김영빈 김은미 김재이 김지희 김태우 김태현 김해근 김혜영 노재현 박가영 박근우 박남숙 박은하 박은희 배민석 백봉덕 성정환 손우민 안영실 안형국 양지희 염동현 유용재 윤지희 윤태순 이각희 이권열 이기울 이병희 이석범 이연승 이은영 이한결 이호준 이환수 임연순 전미경 정선화 정송라 정용석 정희면 조정미 조선호 채혜원 최영 최은정	최창석 최창욱 하순희 하정민 현민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후원회 1억 원 이상 김지원 김희영 이형석 허원 5천만 원 이상 (사)코스닥협회 강성화 이종찬 3천만 원 이상 (사)코스닥협회 강성화 이종찬 충정교회 1천만 원 이상 (주)오렌지커스텀 (주)포워드메듀 강주미 고은혁 김건호 김석현 김이슬 노우영 농사짓는박광배 리나픽 스튜디오 박선용 오에스테크 이기혁 정화원 체육복음BOB 한승우 5백만 원 이상 (주)우리산업 김영일 김윤호 김정범 꿈꾸는 소아치과 박정은 뽀뽀마켓(김다영) 이민경 정의국 조진혁 주식회사미래와도전 푸른안과의원 1백만 원 이상 (주)보광타이어 (주)티앤에이지 (주)하나산업 (주)햇시즈너 Photonics Platform SURJIT DOSANJ 강무삼 강미애 강아람 강현욱 강희주	경규빈 고동욱 권일경 권지훈 금진홍 기업은행 종로 김근영 김나영 김남형 김례은 김리아 김민중 김서민 김석준 김성일 김수현 김승이 김성준 김시은 김엘리 김영규 김영림 김영재 김재윤 김종현 김지영 김지은 김지후 김태관 김태완 김하은 김해인 김현중 김혜진 김효진 남주기클럽 노아인 노은유 류대희 류우영한국1호팬카페 만경이와 만둥이들 문하선 박다정 박상현 박소은 박이준 박주홍 박지우 박현중 박희우 방기환 백수경 백수현 복진희 비비앙홀딩스 주식회사 빅디필름 서울대 MBA 20기 석상선 선비떡방 성기봉 성민재 성예경 손채연 송민기 송백 트레이딩팀 수앤수디자인 신이안 신재윤 양다연 에스필드주식회사	염꽃보라 오수연 오승주 오지웅 오현정 우동준 우지훈 위지선 유수주 유승민 유진민 윤상욱 윤성남 윤향로 스튜디오 이경아 이다나 이대호 이동해 이로아 이승규내과 이승찬 이예지 이용석 이유진 이은선 이의진 이정선 이주형 이지연 이지우 이진희 이현준 이혜진 인천대 한꿈 임기봉 임정원 임지혜 장민영 장지원 전환성 전희욱 정민준 정병수 정승호 정우현 정우정 정윤정 정태화 정찬울 정혜윤 조미숙 조운재 조은채 조현제 주식회사 대원금속 주식회사 레벨나인랩 주식회사 빈에스 주식회사 삼성천막기업 주식회사 안향선사람유직앤서운드 주식회사 케이자와 주식회사 플로우포스 주식회사태영이앤지 진용주 차은수 채종희 최대일 최민경 최재윤 최희진 케이오티(주)	한남향 한우리회 한철연 함수현 허운서 허재민 홍석균 황규호 황일정 50만 원 이상 (주)드로브로스 (주)비네프 강춘례 고혜선 권대원 권순환 김규린 김도현 김동철 김만세 김명선 김보빈 김서은 김성관 김성환 김수현 김시우 김시울 김유진 김은주 김은진 김재현 김준범 김하음 김한석 김현화 김희은 데이비드갤러리 문세익 박건용 박경선 박단비 박민희 박순찬 박시현 박여은 박진상 박찬희 박희원 비엔에스해운 주식회사 서만규 서지원 서해솔 설승수 성신양회(주) 솔밭 유한회사 송성인 안동동물의료센터 원준연 유순자 유유미 유태석 육청미 윤승애 이강구 이경민 이범준 이서연 이세미	이주영 임유나 장용준 정세동 정창용 조윤아 조윤진 조은호 조혜진 주식회사 아이케이푸드 주식회사 지엠이 주식회사 청원이엔씨 주춘희 채명성 천초현 최재원 하음 하정은 한경래 한아진 허재이 현지호 홍신영 홍혜리 홍혜선 10만 원 이상 (주)스타나라 (주)아이코노믹 (주)유한킴벌리 강누리 강다솜 강덕원 강병국 강선희 강세연 강수진 강수진 강중구 강지운 강진숙 강한영 강하리 강한별 강호건 강희경 강희찬 고경준 고성희 고예진 고은영 고은희 고정희 고지원 공민석 공해정 곽성근 곽순중 곽은주 곽현주 곽하나 구경희 구분호 구종심 국다솔 굿즈테인먼트 굿피플 손해사정 권경민 권다은
--	---	--	--	---	---	--

권도연	김연진	문경림	변정섭	우지현	이은미	전예은
권세활	김영상	문선미	사공승철	우재민	이은희	정광호
권소정	김완영	문성준	사심컴퍼니	원영자	이은희	정교필
권순민	김용건	문이지	사영훈	원윤경	이인모	정길수
권순형	김용환	문정규	상의민	원정담	이인열	정대송
권정은	김용희	문현숙	서금석	위수현	이인환	정도윤
권지향	김우진	문혜진	서동연	유성희	이재석	정민경
권지현	김운하	민경실	서동욱	유영은	이재은	정민규
권진용	김유리	민다한	서민희	유지안	이재형	정상안
권현정	김유화	민동환	서백스㈜	유지한	이재호	정성갑(마화연)
권효섭	김윤아	민순홍	서울삼선초등학교 6학년 2반(2026)	유진	이정령	정성아
그레블	김은별	민지수	서원용	유혜영	이정원	정세진
금동식	김은찬	박가연	서장원	육은혜	이정윤	정세현
금성	김은하	박가은	서창윤	윤도선	이제선	정소연
길규빈	김응환	박누리	서호승	윤미영	이제이	정수미
길미영	김이도	박대남	석상인	윤보경	이주빈	정승재
김강인	김인식	박도걸	석지혜	윤보영	이주아	정승혜
김강현	김일규	박동일	성민아	윤선영	이주윤	정시윤
김경	김재민	박두현	성정환	윤성구	이주현	정영재
김경미	김재일	박매환	성지훈	윤성영	이주희	정영진
김경선	김재현	박모세	세무회계컨설팅 봄날	윤여빈	이준웅	정우영
김경숙	김재현	박미경	손명선	윤인아	이지수	정원준
김경아	김재환	박범규	손소연	윤자영	이지연	정유선
김경태	김정선	박상은	손애경	윤재혁	이지영	정윤성
김경희	김정우	박상민	손은주	윤재호	이지컨설팅	정재명
김경희	김정진	박새미	손정현	윤정하	이진우	정재훈
김근하	김정호	박선아	송승하	윤지용	이창민	정종륜
김기수	김종민	박선영	송여진	윤지현	이창우	정지영
김기철	김주경	박선화	송영환	윤지호	이철희	정지윤
김나리	김주환	박성규	송유주	윤지희	이한	정지은
김나연	김주현	박성민	송재성	윤혜리	이향정	정창연
김나영	김준영	박상범	송죽비철자원	윤혜정	이현정	정현교
김남경	김준우	박성열	송지현	은수교통㈜	이현중	정현중
김누리	김중환	박성인	송지희	이건우	이현주	조동근
김달영	김지아	박성준	송창준	이경호	이현지	조미현
김대기	김지윤	박성혁	송청송	이기울	이혜숙	조병극
김대성	김지은	박세영	송현미	이길남	이홍석	조석희
김대원	김지한	박세진	송현희	이남선	이화진	조세린
김도연	김지현	박세진	송홍주	이대식	인채린	조승모
김도이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박세화	시도 스튜디오	이대희	인천면우금초등학교 4학년 4반	조연수
김동규	김진혁	박소은	신가희	이도현	임강미	조우연
김동환	김진희	박소은	신기철	이동민	임근아	조윤영
김두현	김채은	박수정	신동규	이든누리	임우현	조재열
김리아	김초연	박수진	신부완	이명섭	임유정	조재홍
김문영	김태웅	박유진	신시내	이민호	임재륜	조정희
김문주	김태유	박윤진	신용하	이병희	임정민	조주형
김미경	김태은	박은경	신유미	이보림 선생님의 제자들	임주하	조태준
김미림	김현경	박이동	신정초5학년	이상렬	임지민	조현영
김민기	김현석	박재범	신주영	이상민	임진선	조혜령
김민서	김현성	박재순	신지원	이상욱	임하정	조홍재
김민성	김현숙	박재은	신혜원	이상호	임형은	좌정훈
김민식	김현영	박정수	신혜정	이서아	임혜진	주식회사 더와이케이파트너스
김민전	김현주	박정후	심유하	이서현	장솔	주식회사 아이디어스월드
김민정	김형민	박준동	심지울	이석현	장수정	지광문
김민지	김혜리	박지영	심형섭	이선희	장순자	지도초 5학년2반
김병성	김혜림	박지원	심혜승	이성희	장우경	지선명
김보경	김혜수	박지원	안명수	이소현	장유진	진소라
김보람	김혜영	박진명	안윤상	이수미	장윤실	진승현
김상남	김혜진	박진명	안혜림	이수진	장일모	진아름
김상신	김호민	박진석	양승엽	이수진	장재웅	진여진
김상준	김희성	박진수	양유찬	이수진	장정언	진현주
김선영	김효영	박진호	양재의	이수환	장주원	천민재
김선욱	나용성	박찬일	양지윤	이숙현	장철웅	천예성
김선일	남경훈	박창수	양채원	이승수	장철혁	천예준
김선진	남상호	박하윤	엄민정	이승수	장한결	최규남
김선환	남수호	박한솔	엄수미	이승찬	장한별	최민
김선희	남주영	박현근	엄인용	이승하	장혜연	최민재
김성건	남현정	박현아	여해솔	이승훈	장혜영	최선영
김성운	노광수	박형배	연제현	이연욱	장호훈	최수현
김성현	노양현	박혜령	염승한	이영희	전미경	최연재
김세아	노한별	박호준	영상의학과 전공의 일동	이예린	전미화	최연희
김소울	도도나디자인	배수남	오광일	이예주	전상학	최영민
김수안	동우이노베이션	배지영	오수정	이옥주	전소현	최영훈
김수현	류가영	백나영	오수정	이원정	전승욱	최예인
김승욱	류기원	백선희	오승한	이유준	전영신	최옥선
김양수	마경완	백재영	오재학	이윤주	전영인	최완수
김연보	명륜화원	범명아	오정훈	이윤희	전영희	최용

최유미	㈜SPG수소	강재섭	고영일	김명욱	이지선
최윤	㈜거름산업	강희경	곽영주	김희영	이한경
최윤미	㈜삼익산업	고성남	곽영호	박성민	이해원
최윤선	주식회사베룸이컴	권연경	권지현	박형인	장은선
최윤철	㈜이녹스	김금태	김미현	유정훈	장주승
최은서	천일식품㈜	김범주	김보라	이경엽	장희진
최은숙	한일홀딩스㈜	김선자	김석화	이경재	정다위
최은진	함창호	김선중	김세영	이윤희	정숙향
최인규		김세환	김숙형	정석기	정영순
최재경	5천만 원 이상	김영균	김유리	정영배	정우진
최재원	남영수	김윤희	김윤희	주식회사 사마	정주
최재호	엘티메트릭(주)	김현자	김은영	㈜신승알엔티	정창훈
최진석	이진우	김홍일	김익서	최병덕	정하정
최진웅	임현익	박광희	김중욱	최인선	정혜미
최창욱	(재)우덕재단	박남웅	김지영		조영숙
최한승	정영배	박정숙	김지영	50만 원 이상	조정희
최현식	조건호	배경덕	김현영	김영주	조희경
최홍식		복정심	김효진	류주식	주덕만
최희진	3천만 원 이상	서예원	김희중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독교수회	천준석
탁혜윤	도상환	세움세무회계사무소	나윤경	이유섭	최기영
태화산역㈜	주식회사재권	송혁재	박미희	정도자	최레오
티다		신다애	박성준	조구영	최선희
피승빈	1천만 원 이상	심진식	박영주	조숙자	최상희
하선호	강대현	안성준	박준성	주식회사 에프아이에스에듀	최아영
하태욱	김대식	안희영	백선하	주식회사 정우인터내셔널	최영화
한경화	김진우	어혜정	손석호		최은영
한기만	남기상	오철	송영규	10만 원 이상	최창원
한두희	박종연	우정임	신선미	강소현	한명훈
한맥학원	박효숙	원종윤	신지원	강지훈	황윤정
한상동	선보공업㈜	유민경	아이원투자일임(주)	경기도 사계절 필라테스 동호회	황은영
한상영	안경임	유승희	안진	고정민	
한솔희	염민영	윤유지	안혁	구지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한양물류㈜	이영희	윤형기	우상우	권지연	발전후원회
한예지	이윤봉	이명노	유진	김관민	1억 원 이상
한옥희	이인규	이종상	윤보영	김광일	이병길
한웅	정상길	이학문	윤신요	김나영	
한재영	조영호	장명호	이민희	김동균	5백만 원 이상
한지연	㈜디에스프레스	장영	이부리	김선헌	김대환
한혜원	홍기희	진상경	이석윤	김세현	
하새늘		최은영	이예지	김세환	1백만 원 이상
허승원	5백만 원 이상	한윤배	이예찬	김은영	김선덕
허양재	박지윤	한지원	이장호	김재환	박종호
허연주	씨스퀘어자산운용	허찬영	이정은	김종민	정유림
허정임	이용규	황상미	이지미	김진아	
현광인	한상훈		이혜자	김진원	10만 원 이상
홍경원		서울대학교병원	장명욱	류은하	노무법인권익
홍석표	1백만 원 이상	함춘후원회	장성일	박규형	안정환
홍선주	김명욱	1억 원 이상	장영우	박정숙	
홍성현	김민정	조인순	장혜선	방수미	
홍성현,김주연	김학수		전문옥	방진섭	※ 자세한
홍유건	무기명	1천만 원 이상	정미화	배경덕	후원 확인은 전화
홍종길	박난경	한상은	정수연	백남중	(02-2072-1004)로
홍주혜	변석수		정지운	백승호	문의주시기
홍태의	부근시	5백만 원 이상	조수철	변석수	바랍니다.
황소윤	서석종	고만당	천은겸	서경진	
황수현	성모윌병원		최종혁	서기석	
황용승	안광주	1백만 원 이상	최창용	서애스더	
황은총	이경준	(주)윤희상재	황미희	서정원	
황지윤	이규분	강미애		세움세무회계사무소	
황현기	이진	박선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손지현	
황현민	전승혁	서울정석정형외과의원	수누비안나눔회	송선근	
황희선	최아은	신영욱	1억 원 이상	신성자	
	티씨엔코리아주식회사	청소부2시엘uu	한은수	염혜선	
	한태식	황호영		윤연이	
				윤유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윤창진	
발전후원회	김형호	(주)보성메탈	주식회사 재권	윤필영	
3억 원 이상	권민정	안민숙		윤호연	
원동일	장병근	우종임	1천만 원 이상	이상남	
	장윤서	임성규	이윤봉	이송국	
1억 원 이상	채호성	최의근	5백만 원 이상	이아림	
가세도	최명덕		정일연	이용호	
김현모		10만 원 이상	최준용	이은정	
신광현	10만 원 이상	강명희	1백만 원 이상	이정옥	
신현기전㈜	강미경	강민주	고유경	이정희	
유상열	강은자	강창현		이종혜	
이범택	강인수			이준우	
이혜숙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라인 후원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후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어린이병원후원회	함춘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누비안나눔회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발전후원회
문의	02-2072-4122	02-2072-3004	02-2072-0304	031-787-7000	031-787-1142	02-870-2174
예금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후원회	함춘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전 문의 필요
계좌번호	신한 100-020-920897	신한 367-03-023079	신한 100-008-864367	신한 100-020-751657	신한 100-019-706731	

서울대학교병원 후원인을 위한 예우 프로그램입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기부해주신 후원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울대학교병원이 마련한 혜택입니다.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후원회원 성명 등재	건물 벽면							
	병원보, 매거진, 연보							
후원인의 거리-기부스토리 소개(개인후원회원)								
Honor SNUH人 제작-LED 전광판 패널(개인 후원회원)								
감사패 증정								
무료주차 (차량등록)	후원회원 또는 후원회원 가족							
진료비 감면	후원회원 및 배우자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연간 300만 원 한도 / 회원 및 가족 합산)	부모 및 자녀 (개인 후원회원)							
종합건강검진비 (검진 1회당 1매, 기한 내 사용)	후원회원 및 배우자 (연 각 1매 발급)							
진료지원	외래 예약상담	후원회원 및 배우자						
	후원인 지원실 라운지 제공							
	응급의료 상담							
	입원 안내							
병원 간행물 제공								
기념품 제공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후원회(02-2072-10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생로병사: 돌봄의 시간

병의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살피며 삶을 이어가는 돌봄의 시간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기다림에서, 나를 돌보는 하루에서,
오랜 시간 건강을 지켜온 삶에서 돌봄의 의미를 들여다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인스타그램



매거진 VOM
웹진

